



# 공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일

2016.8 / VOL.458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COVER STORY

#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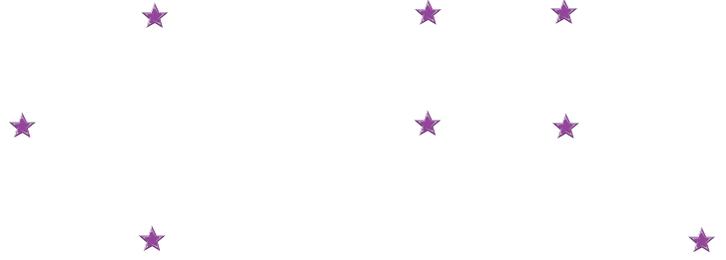
어느덧 60년을 훌쩍 넘은 한미동맹의 역사는 초창기 군사적 동맹의 의미가 부각됐다면 오늘날에는 정치·문화·경제적 우호관계의 의미로 확대·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국 공군 역시 이러한 한미동맹의 역사 아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미 공군인들이 있습니다. 종종 저 먼 나라의 대통령도 외치고는 했던 "We go together!" 그런데 우리와 함께 가야 하는 이 사람들, 이번 달은 을지연습(UFG)도 함께 해야 하는데, 그동안 서로 잘 모르고 살지 않았나요? 그래서 더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달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외쳐 보면서 시작할까요? "같이 갑시다!"





# 공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 Contents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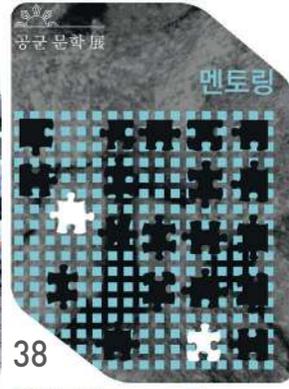
24



28



34



38



44



48



2016

R.O.K AIR FORCE  
VOLUME 458

August

공군 IN

|    |                   |                               |
|----|-------------------|-------------------------------|
| 06 | Pioneer's Opinion | 이효인 경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
| 08 | 기획특집 ①            | We go together, USAF! 같이 갑시다! |
| 16 | 기획특집 ②            | 공군 예비역 초청행사를 다녀와서             |
| 18 | 기획특집 ③            | 공군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청정공군         |
| 20 | 포토 프레임@AF         | 7월의 참모총장 동정                   |
| 22 | Air Force Monthly | 7월의 공군 소식                     |
| 24 | 2016 공군 우수독후감     | 우수상 : 512포대 이태현 병장            |
| 28 | 조인, 조인!           | 호원대 강희성 총장(학사 74기, 학사장교회장)    |
| 32 | 신고합니다!            | 공군군악대 육지산 병장 & 유동연 이병         |
| 34 | 공군이 되는 9가지 방법!    | <제3화> 공군 RNTC 되는 법            |
| 38 | 공군 문학전            | 10전비 이진석 병장                   |
| 42 | Fitness           | 내 몸속 청소 시스템, 림프의 순환           |
| 43 | 하늘을 향한 시선         | Get your cover, Sir!          |



GLOBAL & INSIGHT

|    |                  |                     |
|----|------------------|---------------------|
| 44 | Air-power Report | 펠릭스 유도 폭탄           |
| 46 | 공군 재무관리본부        | 제대로 가입하고, 최대한 이용하기! |

표지(앞)  
We go together!  
사진 하사 김재겸(홍보과)

커버스토리  
글 중위 김 응(홍보과)  
사진 예준위 한홍석(작사)

CULTURE 36.5

|    |                   |              |
|----|-------------------|--------------|
| 48 | Hollywood English | 어린왕자         |
| 50 | 트렌드가 보인다          | 여름철 스킨케어 아이템 |

발행일자 2016년 8월 1일(통권 제458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경두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한상균  
편집감수 중령 윤영삼, 소령 박윤서  
기획·편집 중위 김용, 하사 김재겸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6070300)  
(960-7443~7445, 042-550-7443~7445)

OPINION

|    |         |                 |
|----|---------|-----------------|
| 52 | 생각하는 그림 | 무대 위의 유령, 페이지터너 |
| 54 | 담벼락     | 벌레              |
| 56 | 책 읽는 공군 | 관점을 디자인하라       |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Pioneer's Opinion

## 군대와 예술 : 가수 나훈아는 어떻게 군인을 변화 시켰는가?

글쓴이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영화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영화로 읽는 한국의 사회문화사」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여름, 군인이었던 나는 아직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모든 것이 서툴고 마음은 아직 사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때였다. 연일 계속되는 제식훈련, 사격훈련, 각개전투, 행군 등에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훈련의 일환으로 부대 안 어떤 곳 작업에 투입되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육체노동을 하다가 온 다른 장병들과는 달리, 도시에서만 살다 온 나는 곡괭이와 삽을 잘 다루지 못해 손에 물집이 잡히고 팔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을 했다. 50분 작업 후 10분 간 휴식이 주어졌을 때 간부 한 명이 가수 나훈아 노래 잘 부를 수 있는 병사를 모집하였다. 키가 깎다리처럼 크고 싱거운 동기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는 나섰다. 그에게 주어진 곡명은 당시 인기 대중가요였던 「잡초」였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라는 노랫말로 시작하는 대중가요였다. 그때 대학물을 먹은 청년들은 의외로 이런 대중가요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학가에는 송창식의 모던 포크 계열 음악이나 팝송 그리고 대학가 요제 열풍으로 「나 어떡해」와 같은 록 음악 계열의 노래가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진과 나훈아로 대표되는 대중가요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나훈아의 창법과 거의 흡사하게 부르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음색을 지닌 동기가 부른 나훈아의 「잡초」는 뜨거운 땀벌 아래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신선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는 집을 떠나 강원도 산골에서 훈련받는 나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켰으며, ‘이것저것 아무 것도 없는’이라는 노랫말은 낯선 군복과 병기를





지금받은 병사들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심금을 울리는 노래였다.

그 동기 병사는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는데, 모두가 약속한 듯이 앙코르를 외쳤다. 하지만 휴식 시간 심분이 끝나가던 중이었다. 그래도 병사들은 그가 계속 노래를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그 병사는 작업 대신에 계속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덕분에 작업을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클래식 음악이나 현대적인 음악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나 자신을 반성하였다. 예술은 그것을 만들거나 향유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얼마나 공감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 것이다. '이것저것 아무 것도 없는 잡초라네' 라는 후렴구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절망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흥겨운 곡조와 어울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경을 뚫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는 역설이 숨어있는 것이었다. 물론 군대에서 다양한 출신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군인들을 결속하고 조직의 핵심가치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은 공식적인 지휘와 명령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통속적인 공감 작용이 가미되면 더욱더 효과는 배가되리라 생각한다.

나는 「잡초」라는 노래에 나 자신이 그다지도 공감하는 것에 스스로 놀랐다. 이 일은 내가 군대생활에 적응하게 된 첫 번째 계기이기도 했다. 나는 그러면서 작업을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술의 '대중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 '대중성'이란 단순히 말초적인 동질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고취된 충성심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집된 의식과 감정을 고취하고, 각 개인의 품격 있는 책임감을 조성하는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식막한 군대생활'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앞의 사례에서 보듯 군생활에도 예술은 있다. 군대 고유의 규율과 명령, 전략과 목표 등이 군을 결속시키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가시적인 것이라면, 대중가요나 영화 등 예술 또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충성심과 책임감을 고취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군대 문화가 슬기롭게 잘 운영되어 '식막한'이라는 말 대신에 '즐거운 혹은 가치 있는 군대생활'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We go together, USAF! 같이 갑시다!

글  
중위 김 웅(홍보과)



이번 기회에 더 친해지길 바라~

**We go together,  
USAF! 같이 갑시다!**

### 전투기 첫 출격의 감동, 그 안의 한미동맹...

우리 공군에 있어 한미동맹을 논하자면 의외로 굉장히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이야기가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오늘날 매년 7월 3일마다 공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조종사의 날’ 행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벌써 눈치 채 독자들도 많을 거라 예상이 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L-4, L-5 연락기와 T-6훈련기만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한 대 갖고 있지 않은’ 공군이었다. 제대로 된 무장도 갖추지 않은 채 연습기 뒷좌석에 폭탄을 싣고 출격하여, 손으로 그 폭탄을 떨어뜨리며 적을 공격하는 위험천만한 전투를 펼치던 게 바로 당시 우리 선배 조종사들이었다.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며 전투에 임했던 선배 공군인들은 당시 미측에 F-51 무스탕 전투기 지원을 요구했고 마침내 미 공군이 무스탕 10대를 지원하기로 약속, 이것을 인수받기 위해 우리 공군 조종사 10명이 일본 이타스케 기지로 건너갔다. 그러나 그들은 급박한 전황 속에서 기종전환을 위한 훈련을 생각하고 몇 차례의 이·착륙 훈련만을 소화한 채, 7월 3일에 F-51 첫 출격을 단행하였다. 여기까지가 ‘조종사의 날’의 탄생 배경이다. 이 당시 무스탕 인수 임무의 지휘를 맡고 있던 사람이 ‘6.25전쟁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그 유명한 ‘딘 헤스 소령’이다. 작년 3월, 98세의 나이로 서거한 그는 본인의 무스탕에 “信念(신념)의 鳥人(조인)”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고 우리 공군과 함께 1950년대의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의 시작을 바탕으로 한미공군은 오늘날까지 최우방국으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 함께 지키는 대한민국 영공

이름은 얼핏 들어봤는데 정확히 몰랐던 한미공군 연합 연습·훈련들. 이름이 영어로 돼 있는데다가 화려하기 그지없는 이름들에 늘 헛갈렸던 당신. 가장 대표적인 훈련 몇 가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



### ①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Red Flag Alaska)

이 연합훈련처럼 잘 알려진 한미공군의 훈련이 있을까. 이미 텔레비전이나 공감 콘텐츠를 통해 대내·외에 많이 소개된 훈련이다. 美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으로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공군은 국내 비행단에서 출격하여 8,000km가 넘는 거리를 10시간이 넘도록 '논스톱' 비행한다. '헉! 그게 가능해?' 가능하다. 첫째로 우리 요원들의 강한 정신력과 체력, 둘째로 미 공군으로부터 공중급유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훈련에서 KF-16 전투기들이 미 공군 공중급유기인 KC-135로부터 공중급유를 받아 알래스카까지 날아가 이 훈련에 참가한 바 있다. 2013년에는 F-15K가 참가했었다. 우리 조종사들은 사전에 현지적응을 위한 공중 전투기술, 공대지 공격전술을 훈련하고, 알래스카에서 진행되는 본격적인 훈련에서는 항공차단(AI), 방어제공(DCA), 공중비상대기 항공차단(XINT), 공중엄호(ESC) 등의 작전을 연합으로 실시한다. 언뜻 조종사만 참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훈련에 참가하는 구성원 중 조종사의 비율은 약 30% 정도. 나머지는 작전 지원을 위한 요원 등이 70% 정도. 그만큼 전방위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훈련임을 알 수 있다.



### ② 맥스썬더(Max Thunder)

앞서 나온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못지않게 맥스썬더 훈련 역시 뉴스에서 자주 접했던, 비교적 친숙한 이름일 것이다. Max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처럼 이 훈련 역시 규모가 상당하다. 한반도에서 해마다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공군 비행 훈련으로 양국 대규모 전력을 통해 효과적인 한반도 영공방어를 위한 작전능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 4월 실시된 맥스썬더 훈련에서는 한미공군이 연합 방위 의지를 다지기 위해 양국 공군의 사령관이 상대 주력기에 탑승, 즉 우리 작전사령관이 美 F-16을, 美 7공군사령관이 국산전투기인 FA-50으로 비행하며 훈련을 지휘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맥스썬더 훈련은 아군 역할을 담당하는 청군(Blue Air)과 가상 적군 역할을 맡는 홍군(Red Air)으로 편을 나누어 기상 전투 시나리오에 따른 공중전과 전술폭격 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③ 쌍매훈련(Buddy Wing Exercise)

'버디 윙'이라는 영어명칭으로도 잘 알려진 쌍매훈련은 한미공군의 연합작전능력 증진을 위해 양국 조종사들이 비행대대를 교환 방문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의 훈련으로, 1991년 '우정훈련'으로 처음 협정을 맺은 이래 간헐적으로 실시되어 오다 1998년 지금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매년 실시하는 정식 훈련으로 바뀌었다. 훈련은 전시를 가정해 근접항공지원(CAS) 작전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작전수행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엇보다도 연합작전능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We go together, USAF! 같이 갑시다!

글  
중위 김 웅(홍보과)



사진  
대위(진) 홍진화(작사)  
준위 최준오(작사)  
상사 김정훈(38전대)



Welcome to our base

# 주한 미 공군기지를 소개합니다!



## 공군구성군사령부의 중심, 오산기지(Osan Air Base)

지역 주민들에게 오산비행장, 또는 K-55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 오산공군기지의 설치가 결정된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이다. 원래 육군기지로 사용되었으나 1952년 공군기지로 조정되면서 2,700여m 활주로가 정비되고 같은 해 12월 전투기가 배치되었다. 6.25전쟁 중 미군은 현재 오산종합운동장 일대 부지인 오산천 둔치를 임시비행장으로 사용하다가 현재의 위치인 평택으로 비행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이 기지의 명칭이 평택기지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오산기지로 유지된 것은 미군들의 편익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평택(Pyeong-taek)보다 오산(Osan)이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발음하기도 비교적 편하고 철자도 적기 때문이다.

오산공군기지는 1991년 필리핀에 있던 클라크 공군기지가 폐쇄된 이후,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미 공군기지이며 미 태평양공군 예하 제7공군사령부의 본부이기도 하다. 현재 제51전투비행단도 예하에 두고 있다. 주한미군과 그들의 가족들이 출입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대통령과 같은 주요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비행장이기도 하므로 미군 입장에서는 수도권 항공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 바다와 맞닿아 있는 아름다운 절경의 비행단, 군산기지(Kunsan Air Base)

군산공항, 또는 울프팩(Wolf Pack)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군산공군기지는 군산시 서부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1938년 전투기 요격거점으로 일제에 의해 건설된 군산기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배한 후 주한미군 군사고문단(U.S Military Assistance Advisory Group)에 의해 사용되다가 1949년 대한민국 공군 창군과 맞물려 고문단도 철수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7월에 북한에 의해 군산기지가 점령되었다가 9월 30일 미군에 의해 다시 수복되었다. 이후 미 제3비행단이 1951년 8월 22일 군산기지로 들어와 사용하였다. 6.25전쟁이 끝난 뒤 일본으로 돌아간 제3비행단을 대신하여 제6170비행전대 등 여러 소규모 부대들이 군산기지에 주둔하였으며 1974년 8월부터 미 8전투비행단으로 등록되었다.

한편 군산기지는 우리 공군 전투비행전대도 배치되어 한·미 공동 작전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 미군기지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 Best 3!

### ① 함께하는 문화행사

한 장소에서 같이 살아오며 연습과 훈련까지 같이 하다 보니 어는새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눈빛만으로도 이심전심이 가능해진 한미공군 장병들. 그래서일까 의외로 함께하는 행사들이 꽤 있다. 키리졸브(KR, Key Resolve)나 울지연습(UFG, Ulchi Freedom Guardian)처럼 큰 연습이 종료되면 양측 공군은 한자리에 모여, 정말 제대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빅토리 파티를 즐기기도 하는데 실제로 오산기지에서는 재작년 UFG기간 동안 시청과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문화체험관 부스를 열어 한국전통 음식, 놀이, 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양측 공군 장병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한 바 있다. 또한 연합훈련이나 연습기간 중 친해진 양국 파트너 부서 혹은 담당자들끼리 모여 식사를 한다거나 한국 관광지를 여행하는 일도 적지 않으며 연말 음악회에 서로 초청하는 경우도 많다. 관계가 돈독해지면 가족여행을 가기도 한다고.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것은 한미 연합 봉사활동과 같은 '대민지원활동'도 함께한다는 것. 한반도를 함께 지켜가는 일원이라는 동질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 ② 부대에서 열리는 외국어 교실!

이미 꽤 예전부터 오산, 군산 양쪽 기지 모두 부대 내에서 회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산기지에서는 미측 장병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근무 후 여가시간에 영어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기지에서는 한·미 장병들이 서로의 언어를 교육해주는 진풍경이 매년 펼쳐지고 있다. 애써 서울에 위치한 값비싼 영어회화 학원을 가지 않고 무료로 가까운 곳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나 큰 매력! 두 기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은 인원모집 공문이나 인터넷 공지 게시판에 '영어'로 검색하여 꼭 해당 정보를 확인해 보시라.



### ③ 일반 군부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식(食)문화

제목 그대로. 부대 안에서 기껏해야 볼 수 있는 식당의 종류가 찌개, 중식당, 분식집이었다면 이곳은 양식의 천국. 주한미군부대에서는 정말 미국의 느낌 그대로 식사할 수 있는 스테이크하우스들이 마련되어 있다. 심지어 이러한 식당은 한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오직 미군기지 안에만 설치되어 있는 '미국 원조 브랜드'이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가 한국에서도 많이 즐겨왔던 유명 커피브랜드, 패스트푸드 브랜드 매장도 부대 안에 버젓이 있는데 한국과는 다른 메뉴와 가격을 선보이므로 색다른 맛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단, 이곳에서의 결제는 실제로 미국에서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자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심지어 현금을 낼 경우, 거스름돈을 그날 환율에 맞춰 달러화로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UFG나 KR 훈련, 야근 후 퇴근할 때 출출함을 얼마든지 달랠 수 있다. 웬만한 매장에서 파는 '필리치스스테이크버거'는 꿀맛 그 자체. **AF**



공군IN

기획특집 1

We go together, USAF! 같이 갑시다!

글 박민혜(공감기자 1기)



사진 하사 김재겸(홍보과)



취재지원  
중위 김웅(홍보과)  
통역  
소위 배경수(38전대)



#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군산기지 깜짝 방문! 미군 인터뷰



한미동맹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미군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주한 미공군 장병들을 만나기 위해 군산에 위치한 美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속의 미국,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길처럼 설렘이 가득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Thomas Hainline 대위, Tavares Mays 중사, 그리고 Jared Wood 하사와 즐거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 예상보다 다부진 체격과 강한 인상에 조금 낯설기도 했던 취재팀!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차분하고 유쾌하게 인터뷰에 응해준 세 사람 덕분에 나중에는 오히려 취재팀이 더 들떠서 흥분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그들과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 AF

만나 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각자 자기 소개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



### Mays 중사

반가워요. 저는 Tavares Mays 중사입니다. 군 복무는 약 20년 정도 했고, 통신대대 소속으로 IT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군산에서만 벌써 3번째 근무네요.



### Hainline 대위

Thomas Hainline 대위입니다. 현재 F-16 조종사로, 그동안 미국에서만 쫓 살아와서 해외 근무는 처음이고 당연히 한국도 처음입니다. 조종사로서 첫 해외 근무지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 Wood 하사

안녕하세요, 저는 Jared Wood 하사입니다. 군인이 된 저는 15년, 해외 근무는 7회, 한국은 벌써 2번째입니다. 탄약정비사로 근무중입니다.

AF

와, 이렇게 들으니 더 알아보고 싶어지는데요, 다 캐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은 어떻게 공군의 길을 선택했고, 어쩌다가 현재의 보직을 맡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Wood 하사

사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당연히 미식축구 선수로서의 삶을 꿈꿨었죠. 그러다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막막했던 그때,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미공군으로 베트남 전쟁용사 였는데요. 그러다보니 입대 전부터 공군에 가장 애착이 갔어요. 입대 후에는 저희도 여러분처럼 특기를 선택할 시기가 오잖아요. 사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선택했어요. 특기 안내 리스트를 받았는데, 설명이러곤 고작 두 문단 정도? 그 정도의 정보밖에는 알 수 없어서, 음? 괜찮겠는데?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찍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 선택한 특기가 탄약체계기술이었죠.(웃음). 근데, 막상 처음 근무를 시작하니 야외에서 하는 것도 많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찌푸림). 그런데 이제는 적응도 했고, 또 하사가 되어 후임 부사관들 교육, 병사들 멘토링 등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하하.



Hainline 대위

저도 가족 중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커요. 아버지가 저처럼 전투기 조종사이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꿈은 전투조종사였습니다. 전투조종사는 매년 비행할 때마다 같은 훈련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겐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물론 이런 특성 때문에 더 힘들 때도 있지만(웃음). 아버지께서는 80년대에 수원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데, 몇 십 년 뒤에 제가 여기 군산에서 비행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참 특별한 경험이고 감회가 남달라요!

\* 편집자 주 : Wood 하사의 군 생활이 15년이나 됐음에도 계급이 '하사' 인 이유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군은 모병제 국가이므로 병사부터 시작하여 부사관까지 차근차근 진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Mays 중사

입대 전부터 컴퓨터 다루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분야에 흥미가 많았는데, 공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공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일할 수 있어서 지금도 매우 행복해요!

AF

공군에 대한 애정과 본인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팍팍 느껴지네요. 한국에서의 근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Wood 하사

해외근무에 대해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보직에 따라 근무 기회는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 자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본토가 아닌 해외에서 새로운 임무를 해낼 때 좀 더 성취감을 느껴요. 뭔가 다른 장소에서 내가 이걸 해냈다! 이런 느낌이에요. 또 국내에서 해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에 포함되죠.



Hainline 대위

군산은 미군 전투조종사에게는 둘도 없이 좋은 기회의 땅이에요. 다른 기지보다 비행시간도 많을 뿐더러, 임무비행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전투기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휴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조종사들에게는 비행에 적응하고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많이 제공해주죠. 또 다른 부분에서 말하자면, 해외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들과는 떨어져 지내야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동료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우애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 같아요.



Mays 중사

저는 군산에만 이번엔 세 번째 근무를 했을 정도로 이곳을 좋아해요(웃음). 여행도 좋아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이 저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임무에 있어서도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군산을 선택했죠. 그런데 이번이 아마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곧 전역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다 해보고 갈 계획입니다!

AF

그렇군요. 혹시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고 실제로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어땠어요?



Wood 하사

미국 문화와 아시아 문화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무척 놀라웠어요. 하지만 군산에 오기 전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3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응을 빨리 해서 큰 무리는 없었어요. 두 도시를 비교해보자면 그렇지만 오키나와는 조금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은 정말 놀라운 도시였어요. 엄청나게 현대화된 도심 속에 전통시장같이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또, 미국은 미국 전통 음식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한국은 전통 한식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은 언제나 맛있어서 엄청 좋아해요(웃음).



Hainline 대위

저는 오기 전에 한국에서 복무한 지인들을 통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고도로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서울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짧은 시간동안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룩해 내다니!



Mays 중사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가 2001년도인데 그때랑 비교하면 군산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고 달라져서 놀라웠어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최근에 다시 와서 제가 체감한 것도 많이 달라요. 대위님 말씀처럼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정말 말도 안될 만큼 놀랍죠.



AF

다들 생각보다 더 발전된 한국을 보고는 놀랐군요(웃음). 현재 생활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은 없나요?



Hainline 대위

전 아직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데도 한국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다들 너무 친절해요. 군산시내에 나가면 시민 분들이 모르는 건 어떻게 해서든 다 알려주시고 친근하게 대해 주셔서 한국문화를 체험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도 만족스러워요.

AF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Wood 하사

재밌는 일이라면... 한국에서는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가 아닌 지하도를 통해서 건너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알지 못해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빵집을 가기 위해 한참을 빙빙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웃기지만 슬프죠?) 그러다가 우연히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한 시민을 만났어요. 빵집을 가려면 여기 지하도를 통해서 가면 된다고 길을 알려주셔서 깨달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지하로 길을 건넌다니! 아마 고국으로 돌아가도 이 경험은 영영 잊지 못할 거예요.



Mays 중사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은 예전에 겪은 일이에요. 2001년 군산에서 복무하던 시절에 미군 F-16 전투기 사고가 있었는데 전투기 수습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너도 나도 함께 와서 수습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죠. 시민들이 그렇게 미군을 돕는 것도 생소했거니와, 이렇게 우리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 편집자 주 : 취재팀은 이때 오히려 이런 것으로 놀라워하는 Wood 하사를 보고 더 충격을 받음. '뭐야? 미국엔 지하도가 없어? 라며 놀라워했음.'



AF

혹시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한측 요원이 있나요? 같이 일하면서 힘든 점이나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Wood 하사

지금 소속된 중대에서 군 소속은 아니고 그냥 일반시민들과 일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을 워낙 자주 보다보니 꽤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내로 나갈 때 태워주거나, 군산에서 인천 가는 방법을 알려준 적도 있고, 굉장히 사소한 부분까지 다 챙겨줘서 참 고맙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참 친절하고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 외에도 세세하게 제가 놓치고 있던 것까지 전부 챙겨주는 것 같아요. 놀랍도록 꼼꼼하고 친절하죠. 그리고 소속된 중대가 소규모라 서로 다들 친하게 지내요. 누구 한 명 기억에 남는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제가 모르는 사람을 꼽아야 할 거예요. 이미 소속 중대 한측 요원들 이름은 거의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예요.



Hainline 대위

지금 '버디 워(쌍매훈련)'이라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도 누구 한 사람을 꼽는다고보다는 이곳에서 만난 조종사들과 보낸 날들이 다 기억에 남아요. 양국이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조종사들 간에는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는 어떤 공감대가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양국 조종사들은 서로에게 많이 배우는데요. F-16으로 같은 기종을 조종한다하더라도 한국 조종사들과 미국 조종사들이 운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서로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서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Mays 중사

저희 통신대에서도 한측 요원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미가 연합해서 일할 경우에 양국이 가장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서로서로 문화적인 차이점도 공유하면서 군인으로서, 세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AF

좋은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일과 외에 휴식 시간에는 뭘 하면서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Wood 하사

평소에는 운동을 즐겨서 헬스장을 다니기도 하고, 동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해서 주말이나 휴가 때마다 시간 내서 가는 편이에요. 서울, 부산, 오산 등 한국에서도 가고, 부대에서 기회가 된다면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주변국을 방문하기도 하죠. 미국인인 제 눈에는 어딜 가든 다 각각의 매력이 묻어나와 즐거웠어요.



Hainline 대위

저는 하이킹이나 여행처럼 야외활동을 즐겨요. 아, 맛집 탐방도! 군산이 하이킹하기 적합한 지역이라 주말마다 동료들이랑 하이킹을 자주 가요. 또, 기지에서 주최하는 한미문화체험 같은 것도 다닙니다.



Mays 중사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밖에 여행 다녀요. 가끔 서울이나 대도시로 여행도 가고요.

AF

다들 여행을 좋아하시네요. 여행은 언제나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군인으로서의 삶이 희생해야 할 것도 많고 힘든 길인데, 그 길을 선택해서 또 한국까지 와서 근무를 하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Wood 하사

15년 넘게 군 복무를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길을 걸겠습니다. 미공군 장병들을 포함해 군인들은 당연히 희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크죠. 하지만 평범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미공군 요원으로서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예전에는 지도에 나오지도 않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등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해요. 또 저의 작은 노력으로 세계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Hainline 대위

부모님이나 여동생들과는 연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더 어렵게 근무하는 군인들도 많기 때문에 전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2개월 전에 아내가 군산으로 배치를 받아 함께 지내게 되어서 더 운이 좋죠. 저는 어릴 때부터 꿈꾸던 전투조종사라는 꿈을 이루게 되어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공군조종사로서 저 또한 세계평화에 작게나마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Mays 중사

직업 중에 생각보다 좋은 직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저는 그 직업이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지금처럼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닐까요. 공군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큰 만큼 자부심도 느껴요.

AF

직업에 대한 소신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멋집니다. 훌륭해요! 엄지 척! 아... 그런데 벌써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군산기지에서 생활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목표가 있다면?



Mays 중사

곧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 길었던 군 생활의 마무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로는 미국 대학원 석사과정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데,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Hainline 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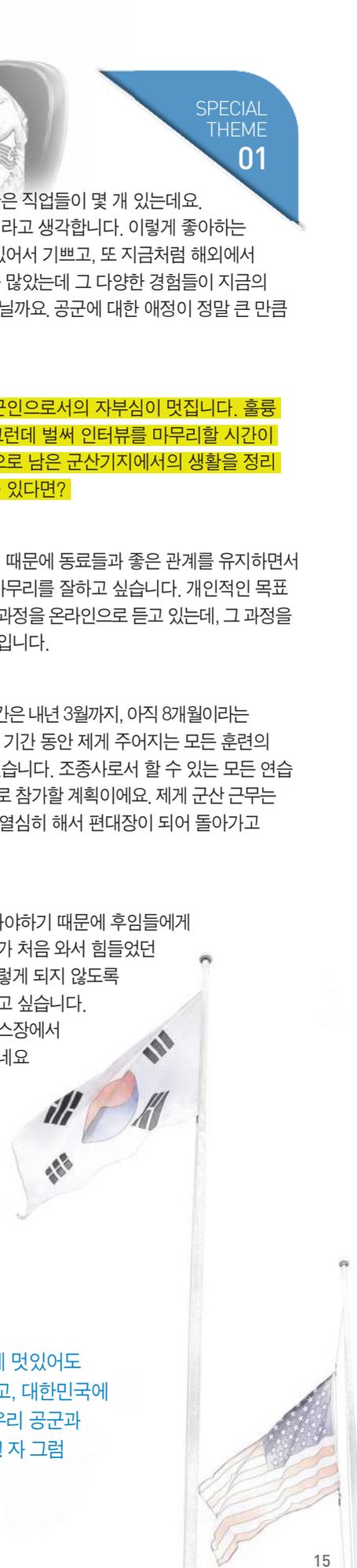
군산에서 보내야 할 시간은 내년 3월까지, 아직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게 주어지는 모든 훈련의 기회를 다 활용하고 싶습니다. 조종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연습이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계획이에요. 제게 군산 근무는 정말 좋은 기회만큼 열심히 해서 편대장이 되어 돌아가고 싶습니다.



Wood 하사

저도 올 11월이면 떠나야하기 때문에 후임들에게 임무교육을 잘해서 제가 처음 와서 힘들었던 부분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넘겨주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로는 헬스장에서 신기록을 세워보고 싶네요 (웃음).

\* 편집자 주 : 아내와는 미 공군 사관학교 CC 출신. 아내 역시 F-16 조종사로 현재 군산기지에서 함께 근무 중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들과의 만남이 아쉽게도 끝이 났어요. 국경을 넘어서 공군인들은 다 이렇게 멋있어도 되나 싶어요, 정말. 공군으로서 뻗속 깊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과 자부심은 그들을 더욱 빛나게 했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세계평화에 대한 소신 역시 우리 취재팀에게 소소한 감동을 전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공군과 미공군이 함께 대한민국 영공방위와 세계평화에 멋지게 기여하는 평화유지군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 같이 외쳐보고 마무리 할게요! 함께 같이 갑시다! Let's go together! AF



공군 IN

기획특집 2

공군 예비역 초청행사를 다녀와서

글  
박사 74기 배호근  
(정보특기)  
(학사장교회보  
SKY지정 편집장)



하늘에 남긴 내 청춘의 궤적

# 공군 예비역 초청행사를 다녀와서

청춘이란 “인생의 때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상태”라고 어느 시인이 읊었던가!

전역한지 어언 삼십 하고도 수년이 흘렀지만 마음은 아직 이 땅의 창공을 지키던 젊은 청년 장교 시절 그대로이다. 사회 어느 분야의 친구들보다 공군 출신들의 관계가 돈독한 것은, 젊은 시절 한술밥을 먹으며 땀 흘려 훈련받고 임관한 끈끈한 전우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하늘을 우리가 지켰다는 누구보다도 높은 자부심 때문인 것이다.

공군 작전의 중추인 작전사령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하면서 미 공군과 연합으로 정보 분석 임무를 수행하던 시간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중에서 내가 일익을 말할 수 있음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지난 6월 30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에서 예비역

초청행사가 있었다. 왕년의 베테랑들을 싣고 서울공항을 출발한 버스가 20비에 도착한 것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 전역 후 처음으로 찾은 공군 기지. 그동안 생업에 열중하느라 미처 다시 찾아올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막상 부대 정문을 통과하니 마치 이제 막 임관한 것처럼 그 시절의 기운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부대 까지 오던 그 시간이 마치 지난 33년의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의 한 과정이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육체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도 이 광활한 하늘 아래에 있는 무적의  
기지에서 시간의 흐름을 거역할 만큼의 용광로 같은 에너지를 우리는 가슴에  
가득 품고 기지를 나설 수 있었다.

창설된 지 20여 년이 된 20비는 적의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격멸시킬 능력을 보유한 최정에 부대다. 360여만 평이나 된다는 광활한 부지는 예전 우리가 근무하던 시절의 기지 규모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국력이 커지면서 기지의 여러 가지 면모도 달라진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공군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군에서 근무하던 시절 우리가 열심히 일군 씨앗을 후배들이 아주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든든하고 또한 여간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설명회 일정을 마친 후 지역 문화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첫 방문지였던 해미읍성은 왜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축성하게 된 곳이라 한다. 평시에는 행정중심지로 기능하지만 비상시에는 방어가지가 되었다고 한다. 공군목표에도 잘 나와 있듯이 공군은 평시에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전시에는 막강한 항공우주력을 발휘해 전쟁에서 승리한다. 자랑스러운 공군 후배들이 읍성에 아로 새겨진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쁜 일상에 쫓기면서 욕망과 집착에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덕사는 잠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되었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만난 윤봉길 의사는 1932년 일제강점기 천지를 뒤흔든 상하이 의거를 일으키면서 지금 우리의 심장이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냐고 물었다. 탐방 일정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하늘처럼 높은 꿈을 갖고 청춘을 불태웠던 그 시절, 육체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도 이 광활한 하늘 아래에 있는 무적의 기지에서 시간의 흐름을 거역할 만큼의 용광로 같은 에너지를 우리는 가슴에 가득 품고 기지를 나설 수 있었다. 다 같은 공군인이었기에 느낄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또 그 마음이 현역과 예비역간의 가교가 되어 이 땅의 창공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선에서 빈틈없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공군 후배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언제 어디서든 응원할 것이라는 나의 고백을 남기고 예비역 초청행사에 대한 소회를 마친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파이팅!! **AF**





공군 IN

기획특집 3

더 강한 힘, 더 높은 신뢰를 위한  
청정공군 캠페인

글  
중위 김 응(홍보과)



“고매한 기상과 품격이 우리를 절대고수로 만든다!”

## 더 강한 힘, 더 높은 신뢰를 위한 청정공군 캠페인

### 무림고수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학창시절, 독자들 대부분이 한 번쯤은 가볍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무협지, 혹은 판타지 문학을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작품들이 펼쳐내는 세계관은 작품마다 판이하게 다를 정도로 고유한 반면, 의외로 그 세계에 나타나는 '절대고수'의 이미지는 공식처럼 비슷한데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겠다. 첫째, 그들은 욕심이 없다.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내공을 지니고 있어 남부러울 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대체로 외유내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오직 악(惡)에 대항할 때가 아니면 자신의 힘을 함부로 내비치지 않는다. 어떨 때는 일부러 범인(凡人)처럼 일반인들 틈에 어울려 살거나 산속에서 틀어박혀 나오지 않기도 한다. 평상시엔 선한 촌장님인데

전시에는 가히 구원의 등불이요, 천상에서 온 수호신 그 자체다. 장르문학의 인기로 힘입어 이 '절대고수'의 이미지가 다소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클래식'에 비추어볼 때 '절대고수'는 그 존재만으로도 고매함과 품격을 두루 갖춘, 세기의 정신적 지주이자, 지상최강의 수호자다. 난데없이 무협지 이야기로 길게 서두를 시작한 이유는 **국민이 바라는 군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공군의 모습**이 이러한 '절대고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고수의 길에 입문하기 위한, 심상치 않은 바람이 공군 내부에서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름하야 '청정공군'

## 청정공군이 뭔가요?

이름부터 맑고 깨끗하다. 청정공군. '청정' 하면 어쩐지 캠페인이나 나올 법한 단어 같기도 한데, 정확하다. 이것 또한 우리 내부 캠페인의 일환이다. 간단하게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청렴한 공군, 정직한 공군, 공정한 공군, 군 기강이 살아있는 공군'의 앞자리를 따서 모아 만든 말이다.



청정공군 추진배경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민들의 관심에 대한 부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반도에 불어 닥치는 안보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올해는 참 구체적인 이야기를 굳이 다 늘어놓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머리에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굵직한 사건들이 몇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공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급격히 향상되었고 우리 공군에 대한 호기심과 능력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최근에 느끼는 독자 분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이런 때에 우리 공군이 핵심가치로 잘 다져진 조직력과 역량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휘하고자 노력한다면 굳이 거창한 홍보와 자랑 없이도 공군에 대한 이미지는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림의 절대고수가 굳이 절대고수라고 본인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듯이.

## 부대 차원의 계획은 있나요?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여주기' 식의 홍보나 자랑을 위한 대외활동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철저히 내부에서 구성원들 전체의 마음속에 일으키고자 하는 돌풍에 가깝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반부패 청렴업무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지침과 계획 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각급 부대나 담당자들이 특별하게 준비할 것은 없다. 그저 모든 장병 및 군무원들이 저 구호들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지휘관들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리더십, 그리고 장병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뒤따른다면 이 작은 돌풍은 우리 공군의 비상(飛上)을 돕는 순풍이 되어줄 것이다.

## 우주최강 절대고수, 대한민국 공군을 꿈꾸며

무림고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열었으니 수미상관을 맺으며 이야기를 갈음해보고자 한다. 보통 무림의 절대고수들은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것, 그것이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졌다고만 하면 아무리 환상소설이라지만 이 재미없는 전개를 누가 눈뜨고 봐줄까. 정말 뼈와 살을 깎고, 피나는 노력 끝에 그들은 고수가 된다. 아주 어려운, 그야말로 지난의 고행길이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순수의 '강함'을 추구하는 인내, 사(邪)와 맞서고, 정(正)을 지킨 의로운 성품. 그들이 절대고수에 다다른 원동력은 결국 재능과 잠재력을 넘어서는 그들의 품성이 아니었을까.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그들에게 최강으로 가는 이정표가 된 셈이다.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이룩한 절대고수의 묵묵한 행보에 대중은 열광했는지도 모른다.

돌이켜보면 청정공군은 새로 시작하는 거창한 캠페인이 아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우리의 모습을 글자로 구체화한 것일 뿐. 우리의 품격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절대고수의 자세일 것이다. 지상최강의 무림 절대고수가 걸었던 길?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지 않은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목표는 우주최강인데 말이다. **AF**





## 공군 지휘관회의 주관

참모총장은 7월 1일(금),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실시된 공군 지휘관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참모총장은 전반기에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주요 작전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사명”임을 강조하며, “후반기에도 엄중한 기강 확립과 결집을 통해 흔들림 없는 국가방위 임무완수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사이버방호센터 창설식

참모총장은 7월 5일(화), 제7항공통신전대에서 실시된 사이버방호센터 창설식을 주관하고 “공군은 대부분의 임무수행체계가 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장 고도화된 사이버방호체계를 필요로 한다”며 “단 한 순간도 사이버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각오와 필승의 다짐으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기증 서예작품 제막식

참모총장은 7월 11일(월), 학정서예연구원 이돈홍 원장 일행을 접견하고, 이 원장이 기증한 서예작품 ‘必勝空軍(필승공군)’과 ‘精銳空軍(정예공군)’의 제막식을 주관했습니다. 학정 이돈홍 선생의 기증 작품들은 장병들의 애국정신과 군인정신 고양을 위해 본청 4층 동쪽 복도 및 대회의실 맞은편에 게시되었습니다. **AF**



August 2016 www.airforce.mil.kr



작사, 부대 창설 55주년 기념식

작전사령부는 7월 1일(금), 부대 창설 55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작전사령관은 장병과 군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작전사령부 건설을 당부했다.



유도탄사, 부대 창설 25주년 기념식

방공유도탄사령부는 7월 7일(목), 부대 창설 2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전투사, 비행단 전술 토의

공중전투사령관은 7월 11일(월), 공중작전능력 향상 및 관련 요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행단 전술토의를 주관하였다.



1전비, 복합 테러 훈련

제1전투비행단은 7월 7일(목), 다양한 테러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비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 복합 테러 훈련을 실시하였다.



5비, 시뮬레이터 경연대회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7월 12일(화), 완벽한 작전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시뮬레이터 경연대회를 실시하였다.



8전비, 공·육 합동 생물학전 대응훈련

제8전투비행단은 7월 12일(화), 전시 적의 생물학무기 공격 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물학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11전비, 전투태세훈련

제11전투비행단은 6월 27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완벽한 전투임무 수행을 위한 실전적 훈련의 일환으로 전투태세훈련을 실시하였다.



15비, Space Challenge 2016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7월 9일(토), 제38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서울/경기 예선지역 행사를 실시하였다.



18전비, 공·육 합동 기지방어 훈련

제18전투비행단은 6월 29일(수), 공·육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합동 기지방어를 실시하여 적군의 기지침투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항공작전 수행여건과 기지생존 능력을 점검하였다.



19전비, 참모총장기 태권도 대회 우승

제19전투비행단 Falcon체육관에서 7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공군참모총장기 태권도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19전비가 종합우승, 8전비가 준우승하였다.



20전비, 157비행대대 6만 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

제20전투비행단은 7월 11일(월) 157비행대대 6만시간 무사고 비행안전을 기념하는 시상식을 거행하며 수상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3여단, 전투지휘검열

제3방공유도탄여단은 7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작전 사령부 주관 전투지휘검열 수검에 임했다. **AF**



공군 IN

독후감특집

2016 공군 우수독후감 대회 수상작  
(우수상)

글  
병장 이태현  
(512포대)



월간(공군)은 「2016 공군 우수독후감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우수 작품들을 따로 특집으로 구성하여 지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대회는 공군 전 부대에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781편의 작품을 접수 받아 진행되었으며,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등 총 29명의 장병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 달은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제512방공유도탄포대 이태현 병장의 독후감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 아버지의 ‘진심’에 답하다

『아들아! 지금 너의 선택이 네 인생을 결정한다』를 읽고

### 아버지로부터 한 권의 선물을 ‘받다’

공중전화를 지나가다 우연찮게 여자 친구와 통화하는 동기를 본 적이 있다. 목소리만으로도 미소를 짓게 하는 애인과의 통화는 그에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다. 매일매일 수줍게 속삭이는 ‘사랑해’라는 고백은 내 동기뿐만 아니라 애인을 둔 모든 군인들의 진심이다. 한편,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궁금해진다. 우리는 과연 일주일에 몇 번 부모님께 진심을 담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가? 특히 아버지께 말이다. 한 달? 아니 몇 년에 걸쳐 손에 꼽을 정도일 게다. 굳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함께한 오래전 추억이 무색해지는 우리의 이중적인 인식함엔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용건과 필요에 의한 대화, 이따금씩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께마저 엄마부터 찾는 모습,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부자(父子)간의 시간은 그저 머릿속으로만 부끄럽게 생각되는 우리의 못난 현실이다.

“아빠는 가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안보고 싶으세요?”





언젠가 아버지께 우연한 질문을 드린 그 순간, 나는 그 물음으로부터 스스로 깨닫는 돈오(頓悟)를 느꼈다. 지금 나의 아버지로 존재하는 당신은 지난날 누군가의 어린 '나'였음을, 나는 그런 모습을 의식하지 못한 채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강요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시점에서 나는 그간의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당신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 여겼고 그 지름길을 찾는데 있어 아버지께서 입대 선물로 주신 「아들아! 지금 너의 선택이 네 인생을 결정한다(원제: Letters To His Son)」라는 책은 좋은 촉매가 되었다.

## 글로 적힌 아버지의 목소리를 '열어보다'

「Letters To His Son」은 작가인 필립 체스터필드가 네덜란드 대사로 근무하던 시절, 자신의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엮은 서간집이다. 사랑해마지 않는 아들을 위한 그의 정성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다. 특히 그는 아들에게 인생의 선경험자로서, '젊음'을 현명하게 보내는 지혜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한다.

“... 네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란다.  
...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엔  
너의 인생은 너무 짧다.”

본문 中

한낮의 땀처럼 짧은 시절에 많은 것을 꿈꾸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아들을 떠올리며 그는 얼마나 흐뭇했을까. 작가의 편지는 자신의 젊었던 과거에 대한 회고임과 동시에 책 밖의 '나'를 격려하는 아버지의 응원이 되었다.

일생에 단 한번뿐인 '젊음'은 군복을 입고 기존과 전혀 다른 삶을 보내는 우리에게 더욱 고무적인 의미로 다가온다. 낯설고 아깝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2년이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무한히 잠재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다. 작가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아들을 향한 작가의 애정 어린 조언은 비단 책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화석화된 지식이나 교훈이 결코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책에 담긴 그의 목소리를 은연중에 간과하며 살아왔다. 이 편지들은 누군가의 유년시절이나 사춘기 어쩌면 불과 어제 들었을 법한 잔소리만 여긴, 바로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훗날 아들들의 진심에 닿을 기약 없는 그 날을 위해, 아버지들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 편지를 보내고 계셨음을. 입대를 하는 어린 자식이 오롯이 혼자서 해내야 할 군 생활을 지혜롭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넸던 당신의 선물을 왜 진작 열어보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2년이나 묵혔던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 나의 아버지를 온전히 '깨달다'

그렇게 아버지의 진심을 펼쳐든 나는 새로운 물음을 가진다. 대체 왜 나는 아버지를 멀게만 느끼고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던 것일까? 12년 전, 나는 아버지의 직장사정으로 인해 11살부터 6년간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다. 어머니께서 나와 여동생을 돌보며 그의 부재(不在)를 감내했던 기억 속, 사춘기의 나에게 있어 아버지의 결핍에 대한 갈증은 자연스레 마음의 벽이 되었다. 오래된 그 벽은 지난 휴가에서 가족끼리 그 기억을 회상했을 때 허물어졌다. 나도 모르게 왈칵 쏟아진 눈물, 이는 오랫동안 깊이 응어리졌던 아버지께 대한 거리감과 그리움이 섞여 내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겪었을 속 쓰린 시간들을 이해했음에 흐르는 죄송함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유년을 매순간 함께 할 수 없었던 아버지 스스로에 대한 자책, 그 시절동안 홀로 버텼을 당신을 외롭게 가뒀버린 벽이 나였음에 그저 무참(無慙)할 뿐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참 아버지께 못난 아들이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의 손 한번 살갑게 못 잡아드리는 소극적인 아들이었고, '가장(家長)'이라는 삶의 무게를 그저 입으로만 나누어 줘

지려는 어린 자식이었다. 그런 부족한 나에게 아버지는 늘 괜찮다며 이해해주신다. '아버지'도 언젠가 나처럼 잘못과 후회를 반복하며 살았던 '아들'이었기에 가능한 공감 때문이리라. 그렇다.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이 너무나 무겁고 막막했을 그 '아들'은 실로 우리의 연장선상에 존재했던 것이다. 잊지 말자. 우리의 아버지도 마음 속 가장 여린 곳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어린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 내 삶에 스며든 당신의 사랑을 '느끼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많이 소원해졌다. 자식들이 어릴 때에는 한창 일하느라 바쁘신 아버지와 눈 맞춤할 시간이 없으니, 육아를 담당한 어머니와의 기억이 유년시절 대부분을 차지할 게다. 다만 여기서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한 모성에 만큼 열어져버린 '부성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누구나 한번쯤 어린 시절 아버지께 최치리로 맞아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내 자식이 저지른 실수가 남들로부터 엄한 소리로 돌아와, 행여나 더 힘든 지경에 다다를까 싶어 더욱 매섭게



다스러야만 했던 그 마음은 무엇일까. 제 자식의 어린 살에 생채기를 내며 가르쳤던 당신의 회초리는 결국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꺼내들었던 작가의 펜과 맞닿아 있는 '부성애'였다.

부성애(父性愛), 쉬이 와 닿지 않는 이 단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정의되는 것인가? 아들, 군인, 남편,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점점이 없을 것만 같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아버지는 자신의 생애를 밝아오는 아들을 흐뭇하게 때론 애잔하게 바라본다. 이는 「Letters To His Son」속 작가가 보여준 선생(先生)으로서의 모습과 바탕을 같이한다. 결국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부성애'는 매순간 자신을 좇아오는 아들에게 베풀었던 진심어린 가르침으로 이미 우리 삶에 켜켜이 녹아들었던 것이다.

## 아버지께 나의 진심을 '답하다'

그저 단편적인 서간집으로만 보였던 「Letters To His Son」, 그러나 무수한 행간을 채웠던 작가의 편지는 곧 나를 향한 아버지의 정성 어린 마음이었다. 나아가 든든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몰지각했던 나를 일깨워준 그 가르침은 감히 갚을 수 없는 '부성애'로 귀결된다.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지금,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군(軍)에서의 경험을 나누고서야 아버지들과 한층 더 깊어진 공감대를 가지니 말이다. 아버지들의 진심을 끝까지 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더 이상 아버지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어린 날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더 크고 단단해진 아들로써 아버지를 마주 안아드리는 것이다.

“할아버지? 가끔 보고 싶지…….”

앞서 드렸던 나의 갑작스런 질문에 대한 아버지의 답이다. 끝을 흐리신 아버지의 눈빛 너머로 느껴지는 애잔한 그리움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반추시킨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늘 외치고 싶었던 무언가는 「Letters To His Son」을 덮으며 선포해진다. 이제 용기를 내어 전하고 싶다. 내 품속에 오랫동안 간직해온 답장을,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진심을. **AF**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들 올림





공군 IN  
조인, 조인!

글  
최승우(공감기자 1기)



사진  
하사 김재겸(홍보과)

취재지원  
중위 김 응(홍보과)



본격, 공군인 자긍심 충전 프로젝트!  
빛나는 공군 예비역 다 모여라!!

# 조인조인!

제3화

##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

“대한민국 실용음악전공 No.1 대학의 총장님!”  
긍정의 힘을 실현하는 참된 교육자,  
공군 예비역 장교(학사 74기)



## 프로로그

장재인, 백아연, 손승연, 김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라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음원차트와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중형무진 활약하고 있는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호원대학교 실용음악학부 출신이라는 것이다. 국내 대중음악 분야에서 손꼽히는 명문으로 인정받는 호원대학교가 지금의 모습을 하는 데는 2001년부터 총장으로 학교를 이끌어간 강희성 총장의 교육철학이 컸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작년 3월부터 공군 학사장교회장을 역임하면서 임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누구보다 활발하게 공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학교 꼭대기 깊숙한 곳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호원대학교 총장실은 방문객을 언제나 환영한다는 듯이 학생들의 발길이 가장 많은 도서관 1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총장실을 찾아가면서부터 느낀 인상처럼, 그는 오랜만에 만난 후배를 대하듯 반갑고 따뜻하게 우리 취재팀을 맞이해 주었다. 그런 그의 뒤편 창가에 놓인 액자들에는 환한 미소로 제자들과 함께 격의 없이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당당히 자리한 모형 항공기를 보면서 공군인으로서 강희성 총장의 아이덴티티 또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 인생의 어떠한 때보다 행복했던 장교 시절

그 옛날 장교, 그 중에서도 공군장교는 스마트하고 신사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그 시대 엘리트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무려 5개월의 지옥훈련을 마치고 임관 후 4년, 즉 53개월의 군 생활을 이겨내야 했기에 그만큼 더 힘든 과정이었을 터. 그럼에도 그는 훈련소와 자대 생활이 재미있고 행복했다고 주저 없이 이야기하면서, 30여 년 전의 기억도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군에 입대하기 이전부터 대학 동기들과 장교로 군 복무를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대학에 있는 육군 ROTC를 같지, 아니면 시험을 봐서 공군 학사장교로 갈지 그게 고민일 뿐이었죠. 주변에서 공군이 사람들도 좋고 배울 것도 많다고 이야기 하니, 저도 생각을 해보고 결국 공군 학사장교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군대 동기 중에 운동을 하다 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기수는 훈련받을 때 유난히 पै기가 넘쳤던 것 같아요. 구보를 할 때도 자진해서 한 비퀴씩 더 뛰기도 했고, 팔굽혀펴기를 받을 때도 옆에 동기가 ‘열 개 더합시다!’ 하면 다들 엉겁결에 열개씩 더 하고 그랬지요.”

“경제학과를 나오다보니 재정 특기를 받아서 회계나 계약·구매 담당으로 일했어요. 공사 입찰이나 원가 계산 같은 일을 하면서 현장업무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장교로 복무하던 당시에는 헌병 장교가 부족해서 임관하고 처음 소위 때 외곽 경계근무를 맡는 경비소대장으로 잠시 복무했었는데, 그때 정말 리더십을 기르는 기회가 되었어요. 솔직히 저도 원래는 요령을 피우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병사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의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나랑 비슷한 스타일은 눈에 들어오거든. 그것으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뒤로는 솔선수범해서 일하는 자세를 제대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군장교라는 그 자리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너무 좋다는 것을 제가 아니까 아들에게도 적극 권유해서 아들도 공군 학사장교로 복무를 마쳤죠.”



## 실전에 강한 인재를 추구하는 교육 철학

호원대학교, 소위 말하는 ‘인서울’ 대학은 아니다. 지역을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설립자께서 남긴 ‘지역에 남아 항상 그 지역과 함께 사는 대학이 되자’는 말이 기억에 남아 그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이 최근 매체에서 크게 오르내리고, 특히 젊은 층에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한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실용음악학부 출신 스타들의 공이 크다. 전 국민이 참여하고 투표한 대국민 오디션에 쏟아지는 수많은 관심 속에서 배출된 스타들은 출신 지역도 성장 배경도 나이도 달랐지만 하나는 같았다. ‘호원대 실용음악학부 출신’이라는 그 이름. 호원대라서 뽑은 것도 아니고, 뽑아놓고 보니 호원대였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최근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꽤나 객관적인 지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을 '흥'의 민족이라고 한다. 그만큼 '절대 대중 놀지 않는' 본능은 곧 뛰어난 음악적 역량으로 이어지고, 덕분에 K-Pop은 세계인들에게 인정받는 한류 대표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 총장은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을 일찍이 발견하였고 대중음악 발전을 위해 실용음악학부를 집중 발전시켜왔다. 어느덧 예순을 넘긴, 적지 않은 나이인 그가 과연 어떤 계기로 현대 대중음악에 눈을 돌리게 되었을까 궁금하였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외국에서 있었던 경험을 떠올렸다.

“미국에서 5년 동안 생활했었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중국 문화에 비해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문화를 알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음악 역량이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요즘 학생들은 어렸을 때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것들 많이들 배우잖아요? 그래서인지 클래식음악에 대한 기반이 다져져있어요. 그뿐인가요? 우리나라 요즘 학생들은 음악 취향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 정도로 폭이 넓어요. 우리 가요도 듣지만, 팝송도 듣고 J-POP(일본), Hip-hop 등 안 가리고 다 듣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세계 음악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저렇게 다

양한 국가의, 다양한 장르 음악을 어려서부터 다 접할까요? 같은 대중음악을 접해도 오히려 폭넓은 안목과 독특한 창작능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한국 학생들이거든요. 그렇다보니 저절로 뛰어난 실력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실용음악학부를 통해 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진정한 실력을 갖춘 음악인으로 양성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수임용도, 학생선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력보다 현장 경험이고, 수능점수보다 진짜 실기 실력이지요. 미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비틀즈처럼 세계적인 대중음악인이 탄생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호원대가 그 역할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캠퍼스를 지나면서 무기가 전시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호원대학교에 국방기술학부가 있기 때문이다. 공군장교 출신인 만큼 국방기술학부를 운영하면서도 '실용'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기존의 군사학과는 이론과 행정을 중심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군인이 되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 통신 등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매년 80명 정도가 장교로 임관하고 있고, 군인이 되지 않아도 무기, 항공기 정비 기술을 익혀 방위산업체나 항공사에 취업하고 있어서 취업에 강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는 공군인!

그는 공군에서 장교 복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자산은 현재 사회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기와 선·후배라고 강조하면서, 동기들과 고등학교 동창만큼 친한 우애를 이어오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휴대폰을 꺼내 동기 ‘단톡방’ (단체 채팅방)을 직접 보여주었는데, 무려 18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여 인터뷰하는 당일에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소통이 활발했고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동기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수시로 모이고 있어요. 탁구나 테니스를 하기도 하고, 칼국수 한 그릇 하기도 하죠. 또 건강에 신경 쓸 나이기도 하나씩 서로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관찮은 병원 리스트가 줄줄 줄 나오요. 재밌죠. 제가 추천 해주기도 하고요. 동기가 있으니 외롭지 않고 항상 의지가 됩니다.”

동기 단톡방 외에도 그는 학사장교회 밴드를 열어 모바일 소통창구를 여는 등 현대적인 감각으로 공군 예비역들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공군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시도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회장으로서는 후배들의

활동이 갈수록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후배들이 한창 사회활동을 할 시기이다보니, 학사장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전역한지 얼마 안 된 후배가 모임을 찾아오면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고맙잖아요. 이렇게 찾아와준 것 자체가. 마침 얼마 전에 전역한 128기 후배 다섯 명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을 주기도 했죠. 또 매년 정기적으로 등산과 연말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젊은 후배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운을 떼며, 학생들과 공군 후배들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을 이곳저곳에서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만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사장교회에서도 전역 후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들을 위해 취업지원활동도 하고 있으니 청년들이 포기하지 말고 항상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즐겁게 보냈던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나라 음악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험을 들으면서 강희성 총장의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그 기운을 통해 회장으로 있는 공군 학사장교회가 이전보다 활발한 모임으로 발전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우리나라의 비틀즈가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AF**





공군 IN  
신고합니다!

기획 / 사진  
하사 김재겸(홍보과)



유동연(22세)  
병 763기  
군악(색소폰)  
2016. 4. 18.  
(이집트곡: 트라이스 - cheer up)

**공군에 들어온 계기는?**

군대는 항상 공군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군에비하면 약3개월이길지만 저의 특기(색소폰)를 살리며 빛나는 군 생활을 하고 싶어 공군군악대 시험을 보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군 생활 중 목표는?**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여 2년이란 시간을 뜻깊게 보내고 군악대에서 각종 행사를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추억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군악병 임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벌써부터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 굉장히 설렙니다. 남들에게 공연을 선보이는 만큼 충분한 연습과 준비를 하여 멋진 공군군악대에 일원으로서 한몫 든든히 해내고 싶습니다.

**전역자이기에 한마디**

지난 2년간 재능과 열정을 다해 빛나는 공군 군악대에 일조하신 선배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군악대 일원들이 항상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여 자랑스러운 공군군악대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멋지게 사회로 복귀하십시오! 필승!



# 신.고.함.니.라



**육지산(24세)**

병 743기

군악(트럼펫)

2014. 8. 18.

(이입대곡 : 레드벨벳 - happiness)

## 공군에 들어온 계기는?

어렸을 때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악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꾸준히 흥미를 가지고 연습을 해왔고 트럼펫으로 군악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했나요?

계룡대군무지원단 군악대 같은 경우에는 공군 본부 및 계룡대군무지원단 행사를 지원하고 이외에도 국군의 날, 합동임관식 같은 큰 행사, 대민 퍼레이드, 빅밴드 공연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15년 여름에 광화문에서 빅밴드 공연 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광화문은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수많은 외국인들도 많은데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 즐겁고 뿌듯했습니다.

## 후임자에게 한 마디

유등연 이병은 전공자니까 앞으로 자기가 마음 먹기에 따라 군 경험은 누구보다도 더 의미 있게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군악대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자기계발의 발판으로 삼아 장차 공군 출신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F



공군 IN

공군이 되는 9가지 방법 : RNTC편

글  
이휘리(공감기자 1기)

사진  
하사 김재경(홍보과)



취재지원  
교관 김양호  
(부사관학군단),  
중위 김 응(홍보과)



저 하늘에 꿈을 펼칠 당신의 청춘을 응원하는 공감팀의 특급 지침서!

# 공군이 되는 9가지 방법!

- 제3화 공군 학군부사관 되는 길 -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한다. 공군에서는 전문가라고 하면 보통 준·부사관을 떠올린다. 공군은 일찍이 부사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의 견고한 허리 역할을 수행해줄 부사관 양성을 위해 2015년부터 학군부사관(RNTC,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 Training Corps)후보생을 선발하고 있다. 조금은 낯설지만 우수한 항공정비기술부사관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 학군부사관을 통해 공군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자.



## #1. 학군부사관이란?

학군부사관은 부사관 양성을 위해 지정된 전문대학에서 체계적인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아 졸업 후 하사로 임관하는 부사관을 말한다. 기존에 널리 알려진 ROTC, 즉 학군단 장교들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다. 학군부사관제도는 2015년을 시작으로 각 군마다 1기 후보생(공군1개교, 육군 3개교, 해군1개교, 해병대1개교)들을 선발하여 자체 교육하고 있으며 올해 2기 후보생을 선발하였다. 대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쳐 준비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학군부사관후보생들은 오늘도 공군의 이름으로 저 하늘 높이 비상할 힘찬 날갯짓을 연습하고 있다.



## #2. 정예 공군부사관이 되기 위한 엘리트코스

기존에 공군 부사관이 되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임관하는 '부사관후보생' 제도와 학군부사관후보생 선발절차는 고등학교 및 대학 성적을 반영하는 것 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기존 부사관후보생들은 12주의 기간을 한 번에 집중해서 이수했다면 학군부사관후보생은 ROTC와 마찬가지로 대학을 다니면서 학기 중, 방학 중에 틈틈이 나눠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공군 학군단부사관 과정이 설치된 영진전문대 문경성 단장은 "일반 부사관들이 빠르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입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군부사관들은 대학교육을 마친 만큼 차별화된 장점을 보일 수 있는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보생들은 졸업 전까지 전원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공군부대 현장실습교육 및 체험은 물론 군대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군 역사에 대한 이론까지 겸비하여 국가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 부사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항공정비 분야 전문가 육성에 커리큘럼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존 부사관후보생들이 성적에 따라 수많은 특기와 병과로 나뉘져 흩어지는 것과 달리, 학군부사관후보생들은 임관 후 전원이 항공정비 분야(기체/기관/통신/장비정비/전자제어장비정비 등 5개)로 진출할 수 있다.

## #3. 대학생들의 낭만은 덩! 학군부사관만의 특전이 더!

대학 졸업 후 하사로 임관하는 학군부사관의 경우, 대개 1학년 1학기(2년제 학과 기준) 재학생들이 일련의 선발전형 절차들을 통과해야만 최종합격하게 된다. 대학생의 신분이면서 한편으로는 공군 부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합격 후 정식 후보생이 되면 기숙사 생활, 군사훈련, 제복착용이 생활화되어 있다. 훈련기간 중 사회와의 단절 없이 대학생들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반 학생들에 비해 어느 정도 제한된 캠퍼스라이프는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멋진 제복을 입고 교정 앞을 제식에 맞춰 늠름하게 걷고 있는 후보생들은 일반 학생들이 느끼지 못하는 자부심 역시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딱딱할 것만 같은 생활 속에서 후보생들의 얼굴이 밝고 건강한 이유는, 빛나는 20살의 풋풋함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부사관 임관과 정예공군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세운 후보생들만의 더 큰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학군부사관 특전

- 교육수료, 임관종합평가 통과 후 졸업 시 공군 부사관 임관
- 후보생 기간 중 제복, 교재비 및 소정의 교육비 등 지급
- 항공정비 전공교육 및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집중이수



#### #4. 우수자원 획득을 위한 엄격한 선발과정

영진전문대학 재학생들조차 학군부사관 지원하기 전 혼동하는 정보가 있다. 바로 부사관계열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공군 학군부사관은 만 18세 이상, 영진전문대 재학생이라면 소속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항공정비계열 전공자가 아닌 학생은 합격 후 소속이 항공정비전공으로 바뀌는 '전과' 과정이 이루어진다. 모집일정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월부터 3월까지 지원서를 접수 받아 4월 중 필기시험을, 5월 중 신체검사를, 6월에 최종면접과 체력검정을 치른 후 합격자를 발표하여 8월 중 교육사령부에서 기본군사훈련을 거쳐 9월에 입단식을 거행한다.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숙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격을 위한 준비된 자세! 혹시 독자들 중 관심이 있는 자는 반드시 공군 홈페이지나 교내 안내문을 수시로 확인하여 아깝게 지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특히 내후년 4기 모집부터는 제도가 확대되어 부사관학군단이 설치된 학교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 모집학교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하는 것은 센스!

|              |   |
|--------------|---|
| 1차 전형        | 선발인원 : 최종 모집정원의 2배수 선발(약 60명)<br>반영비율 : 필기시험(80%) + 수능/고교 학생부 성적 20%<br>필기과목 : 한국사, 인지능력평가, 상황판단평가 등<br>가 산 점 : 항공정비전공 지원자(10%), 다자녀가구 학생(4자녀 이상, 3%) |
| 2차 전형 (적부심사) | 면접평가 : 국가관, 리더십, 인성 등 8개 항목<br>신체검사 : 징병 신체검사 판정 기준 3급 이상 (단, 정신과는 2급)<br>체력검정 : 오래달리기<br>* 남(1,500m/7분 44초 이내), 여(1,200m/8분 15초 이내)                  |
| 최종선발         | 종합평가 : 필기성적 50%, 대학성적 40%, 수능/고교성적 10%<br>선발인원 : 30명(여성 3명 포함)  |

RNIC가 되는 방법 A부터 Z까지 속 시원히 궁금증 해결!!

#### # 학군단에게 직접 물어봐! (Q&A)

해맑게 웃는 두 후보생의 모습이 영락없이 이제 막 20대를 시작하는 대학생 새내기 같았지만 학군부사관 1기들을 대표하여 인터뷰에 응하는 김성렬, 류다솜 두 후보생의 모습에서 공군이 되기 위한 준비와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이라는 걱정과 설렘,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다부지게 생활하는 학군부사관후보생 1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두 분 모두 어려서부터 군인이 꿈이라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 공군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성렬** 부모님 지인을 통해 군인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되어 꿈을 키웠고 입시 준비를 하며 항공정비전공으로 진학하면서 공군이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제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솜** 저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언젠가부터 멋져보여서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주변으로부터 타군에 비해 공군이 복지혜택도 좋고 부대 위치도 대체로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조직문화도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들었고요. 마침 제가 전공한 항공정비가 그런 공군에서 영향력도 있다고 하고, 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국방에 기여할 수 있겠다 생각에 소신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학군부사관 경쟁률이 3:1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선발된 이유가 뭘까요?**

**다솜** 저의 경우는 면접 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긴장을 하지 않고 답변을 당당히 잘한 모습이 인상 깊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필기는 한국사 공부에 가장 관심이 될 것 같아서 1급 자격을 취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주변을 봐도 실제로 한국사검정능력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성렬** 학군단 장교도 그렇듯이 저희 부사관도 선발 과정에서 고등학교 성적이 포함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미리 관리한 것이 아니라 당황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성적을 이미 바꿀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반영비율이 10%로 비교적 낮은 것에 희망을 가지고 제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매진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남들은 캠퍼스라이프나 낭만을 찾는다면 즐기기 바쁠 때 저는 학점관리를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면접은 예상 질문을 미리 생각해서 목록으로 만들고 그에 따른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Q. 학군부사관 '1기' 시잖아요. 자부심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될 것 같아요.**

**다숨** 군 간부로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기 위해 후보생들이 스스로, 혹은 추천과 투표를 통해 명예위원이나 자치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나 행사 등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생소한 것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져놓은 것들이 앞으로 2기, 3기 후배들에게 전해지면서 전통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보람도 있고, 더욱 열심히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렬** 맞습니다. 학군단 구호나 학군단가 같은 것들도 누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 만든 것들입니다. 어떤 역사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이 뿌듯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심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Q. 네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그럼 1기 후보생들은 내년 임관을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다숨** 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정비기술부사관으로 임관하기 위해 항공산업기사 자격증은 필수라고 생각되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방학기간 중 산업기사 자격반 특별과정을 개설하는 등 여러모로 적극 지원해주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렬** 저도 마찬가지로 학과공부를 통해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고 있고, 체력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사관후보생으로서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고 군인정신으로 잘 무장된 간부가 되려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Q. 역시 체력이 국력이죠! 후보생들 스스로 느끼기에 학군부사관만의 유리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숨** 우선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학위를 취득한 채로 임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련 자격증 취득과 생생한 현장경험을 위해 학교(학군단)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해주고 있다는 것이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학교 차원에서 저희에게 정말 많이 신경써주고,

적극적으로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또, 대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취업에 대한 생각, 다들 어느 정도 하고 살잖아요. 저희는 재학 중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시험이랑 집중교육 없이 공군 부사관이라는 매력적인 직업이 보장되어 있으니깐. 그게 아무래도 가장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렬** 주변에서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있어요. 그냥 시험 봐서 일반 부사관후보생으로 가면 지금도 바로 부사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후보생으로서 살아가는 이 1년 반의 교육기간을 통해 임관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이론과 실습능력을 모두 겸비한 인재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대학 졸업장, 자격증, 모두 매력적이지만 입대 전에 공군에 대해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공군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부사관후보생으로 입대를 했다가 생각보다 나 자신과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응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체험을 해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땐 굉장히 큰 장점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공군의 문화가 너무 맘에 들고요. 항공업체 실습, 부대견학 등을 통해 미리 자신의 임무에 대해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미래의 학군부사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성렬** 아마 일반 대학생처럼 자유로운 학교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서 목표의식을 잃으면 생활방식에 대한 고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 부사관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며 '왜?' 라는 생각 대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저희 학군단장님께서 늘 강조하신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는 말씀대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숨** 저희 학군부사관의 경우 임관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뜻 보면 긴 것 같지만 사실 그 기간은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군부사관이 되기 위한 시간이며 그 후보생의 신분으로서 누리는 것도, 배우는 것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정보를 잘 습득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욱!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정말 정예공군의 일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공군이라는 이름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항공정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정예 공군 부사관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든 후보생들이 무사히 임관하여 준비된 항공정비기술부사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길 응원합니다! **AF**





강당 안은 시종 좌중의 열은 웃음과 마이크를 타고 울리는 두 사람의 음성이 채웠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두 번째로 쓰신 증편은 다시 읽기가 민망하시겠군요.” “뒀, 그런 셈이죠. 5년 전에 필명을 썼던 때에 슬쩍 저자명 바꿔서 외면해버릴까 싶었던 작품 중 하나예요.” 널찍한 연단 중앙엔 두 개의 검색 소파에 제가끔 앓은 남녀와 유리 탁자뿐이었다, 사회를 맡은 여자가 줄곧 마주 앉은 남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의 흐름을 트기 위한 가벼운 농을 쳤고 사내는 낮게 깔리는 목소리로 비교적 간소한 대답의 말들을 풀어놓았다. 깊은 저녁의 대학 강당이였다. 객석을 빼곡히 채운 청중들과 무대 위에서 몇 장의 대본용 판지를 쥐고 앉은 여자의 곁에서 수수한 양복 차림으로 있는 그 중년의 남자 사이에는 이미 꽤 많은 문답이 오가고 있었다. 삼백여 석의 다닥다닥 붙은 좌석을 꼬박 채워 앉은 청중들은 모두 각자의 두 눈을 빛내며 조명과 각광이 밝히는 무대 위로 시선을 내리쬐었다. 저마다 가장 생기 있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꾸며낸 20대의 학생들이었다.

그들 앞에서 학교의 문화콘텐츠학부 교양 교수로 초빙되어 강의를 한 지 1년을 맞은 작가의 특별 강연 및 대담이 진행된 지 한 시간 반이 넘어 장내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있었다. 그를 이 명문사학의 초빙교수로 앉힌 소설가로서의 이력은, 각종 취업난과 경기침체 등의 문제 중첩으로 인해 전례 없는 수난에 처해있다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생각의 장을 마련해 주겠다는 따위의 의도로 기획된 이 명사들의 특별강연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참석률을 자랑케 할 만큼 주목받는 것이었다. 청춘과 젊음을 소재로 휴머니즘적 소설을 왕성하게 써 왔거니와 대중적 작법으로 인기를 끌어 출판시장의 거목으로 자리한 시간만 해도 굵직한 한국의 대표작가라고 할 수 있었다. 더불어 방송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활동을 통해 공개된 그의 언변의 현명함과 인간적 매력은 젊은 세대의 절대적인 비호를 사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토록 무구하고 공고한 인격을 바탕으로 대중을 움직일 만큼 출중한 직업적 재능을 발산해내는, 작금의 단어로 완벽한 ‘멘토’로서의 인간상을 하고서 그는 무대의 각광을 받으며 우두커니 앉아 청중의 쏟아지는 존경의 눈빛과 그들의 고민에 찬 온갖 질문세례에 답변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었다. 사회자가 다시금 말을 이었다. “자, 시간이 빠르게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질문 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두어 개만 더 받아볼까요? 다음 질문 하실 분 어디 계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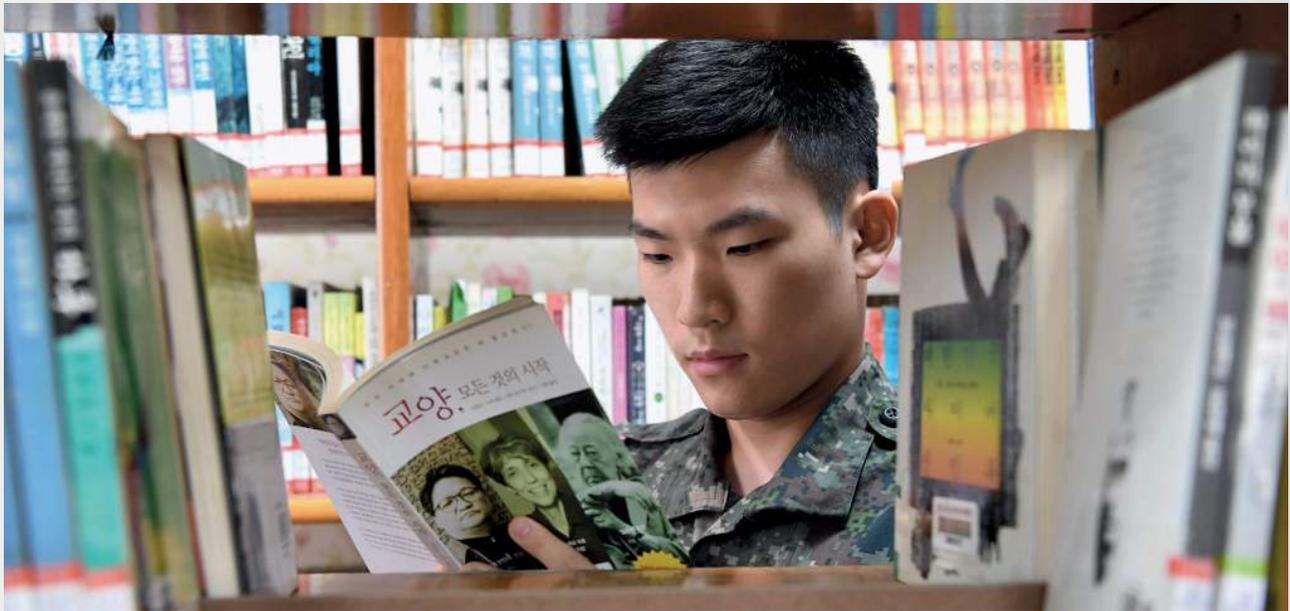
앞서 일고여덟의 문답이 오가는 내내 모래알 같은 청중들 사이를 비집고 득달같이 팔을 들던 움직임이 이번에는 눈에 띄질 않았다. 이어 서로 간의 눈치를 보듯 멈칫거리던 그 어색한 박자의 틈새로 단독의 거동이 있었다. 중간 줄 좌석의 오른쪽 끄트머리에서 오른팔 하나가 느릿하게 뻗어 올랐다. 사회자가 지목하자 손의 주인인 왜소한 체구의 청년이 일어섰다. 한순간에 쏟아지는 장내의 이목을 버거워하는 듯 주춤거리는 몸짓이었다. 행사 요원이 가에 난 계단을 올라가 그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청년은 쭈뼛거리며 마이크를 켜고 말을 시작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복학한 영어영문학과 2학년입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제게 특별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에 초빙되어 오셨다는 소식은 너무나 운명 같았습니다.” 청년의 말은 길어질 듯싶었고, 청중은 그가 읊조리는 말의 박자감에 흡수되어 들어갔다. “교수님께 꼭 답을 여쭙고 싶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를 보면 꿈이 있다고 말하는 부류와 없다는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입니다. 그 꿈이 뭔지는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 일에 나름대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의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 공인된 성과들이 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요. 꿈이 있고, 이루고 싶은 욕심도 있고, 자질도 있는 상태입니다만, 정말 황당하게도, 저는 사실 제가 꿈이라 여기는 그 일이 귀찮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 귀찮습니다. 사실 저는 매사에 귀찮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 일이 좋기는 한데, 막상 하면 힘듭니다. 이걸 가벼운 불평이기도 진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꿈을 좇을 것인지 보통 노선을 탈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선생님은 엄청 다작하는 작가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많은 작품을 쓰고 글쓰기에 헌신하시는 걸 보면 진정으로 본인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천재의 아이콘이시지 싶습니다. 그러한 선생님께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감히 드려봅니다. 답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좌중에는 ‘귀찮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시종 잔잔한 웃음이 인다. 그의 장황한 질문은 분명 실내의 공기를 가볍게 만든 것 같았다. 무대 위의 사회자와 교수 사이에도 미소가 교환된다. 교수는 다소 어색한 몸짓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다놓고는 생각에 잠기는 듯 보인다. 장내의 웃음이 사그라지고, 청중은 다시금 주목했다. 교수의 음성을 통해 모두가 기다리는 답이 파급될 차례였다. 입가에 걸렸던 그의 희미한 미소가 느릿한 몸짓으로 자취를 감춘다. 그는 마이크를 입에 댄 채 팔짱을 끼고는 어딘가를 응시한다. 초점이 불분명한 곳에 걸린 시선은 뜻밖에도 골똥하다. 그는 질문의 무게에 걸맞지 않게 진지해 보인다.



“음.” 교수는 마이크의 파장에 단말마의 음성을 신는다. 이내 천천히 입을 떼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무언가 솔직하고 예상외인 답변을 건네야겠다는 의무감이 듭니다.” 무작위의 지점에 가 닿아있던 그의 초점은 돌연 명확한 시선을 만들어 청년에게로 가 닿는다. “우선 학생의 용기 있는 질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유의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이 질문은, 제가 오래도록 기다려 왔다는 느낌이 들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네요. 진지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중은 잠잠해지고 그의 시선은 강당 안 전체를 훑는다. “저는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짧게 운을 떼고 청중을 바라본다. “이만한 경력이 쌓이도록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제 일을 좋아한다는 한마디를 못한다면 되레 이상한 일이겠지요. 저는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글을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고, 말의 틈새에는 간헐적인 멈춤이 있었다. 그는 무거운 돌을 던지듯 말을 느릿하고 신중하게 뱉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 제 집 서재의 나무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자구나 하고 작업을 시작하면, 저는 갑자기 싫습니다. 원고지에다가 연필로, 가끔은 노트북에다 한글 파일 켜 놓고 글을 쓰자고 하면, 저는 미친 듯이 싫은 겁니다. 글쓰기는 저에게 어렵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싫은 일이 글쓰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힘들게 작업합니다. 꾸역꾸역 씩니다. 글은 바깥에서 쉽고 안에서는 어려워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글쓰기를 좋아하노라 떠들고 집에 들어가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큼 제가 재능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글재주가 있지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저는 글 쓰는 게 힘들 뿐입니다. 하얀 백지에 까만 활자를 채워 넣으려고 몸부림치는 와중에, 저는 항상 그 지면 바깥을 생각합니다. 글쓰기의 외부로 소망합니다.” 교수는 어느새 안경알 뒤의 작은 눈을 부릅뜬 채 빠르게 말을 쏟고 있었다. 쏟아지는 말들이 청중의 침묵과 경직된 표정들에 가 닿았다. “저는 이제 작가가 아닐 수 없게 됐습니다. 글을 안 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글이 좋습니다. 막연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순간은 항상 고통입니다. 잘 안 써지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모순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 자신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글을 씩니다. 그것이 저의 애환입니다. 제가 재능을 온전히 발휘해 성공한 사례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재능이 괴롭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긴 하지만, 귀찮고 힘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질문을 한 학생과 똑 닮은 인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눈에는 일을 쉽게 하면서 성공한 동료 작가들, 유명인들이 수두룩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 저는 근근이 버티는 이루입니다. 왜 마라톤을 뛰어도, 선두 그룹에 있긴 해도 가쁜 숨을 겨우 붙들어가며 괴롭게 달리는 주자가 있을 테지요. 세상에는 가쁜 호흡으로 연명하는 유형의 명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의 이 답변이, 학생의 행보에 다소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교수는 말을 마치고 입을 지그시 다문 채 청년을 바라본다. 오묘한 표정과 함께 청년은 말이 없다. 그 침묵은 그뿐 아니라 좌중 전체에 깔려있어 실내는 잠시간 고요하다.



대면

군 입대 이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영화나 문학 쪽으로 나가고 싶었던 평범한 대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응모작에 나오는 학생처럼, 장차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선언하기는 하지만 정작 가끔씩은 그 일이 귀찮아지는 것이 고민이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멘토링'에 등장하는 학생과 유사하게 장차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을 '질문하는 학생'으로 100% 일치하게 대답한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내향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성격이라 아마 실제 상황이라면 그 학생처럼 질문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민을 그 학생처럼 강연회에서 질문한다면 어떻게 상상하면서 썼습니다.

본인에게 꿈이란?

꿈을 품는 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만, 때로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일을 복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꿈이 있다고 얘기하면 신기하게도 백이면 백 비웃음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던 기억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꿈을 가지는 일이 좋은 일이고, 혹은 꿈을 갖고 싶는데 딱히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행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요즘에는 열심히 제가 꿈이라고 여기는 일의 값어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꿈만큼 행복이라는 키워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꿈과 행복 사이에서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춘들이 꿈과 행복 사이에서 올바른 정도를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본 적 있나요?

본디는 자기 꿈을 좇는 것이 곧 행복해지는 길이어야 맞는 것이지요, 어떠한 때에는 그것들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감히 꿈을 좇았을 때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아무래도 삶의 물질적, 외면적 조건인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고 물질적 풍요를 쟁취할 수 없다면 양자택일을 해야 할 텐데, 어느 쪽을 택할지는 개인의 판단에 달린 일일 테고 저도 아직 답은 모르겠는 상태입니다. 흔한 답이겠지만 다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웃음).

자신의 멘토는 누군가요?

스티븐 킹이라는 미국의 작가입니다. 술한 베스트셀러 소설들을 다작하는 솜씨에 있어서나, 그의 에세이와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유머러스함과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에 있어서나 늘 지침이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어주는 소설가입니다.

작품설명

평소 성공한 명사들의 강연 자료, 인터뷰 등을 찾아보곤 하는데, 그 중에는 평범한 말밖에 들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머릿속을 혹 찌르고 들어오는 신선한 조언을 마주하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문득, 청중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에 범상한 답변을 줄 것만 같아 보이는 무대 위의 명사가 예상치 못한 대담으로 놀라움을 주는 상황을 써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AF**



## 내 몸속 청소 시스템, 림프의 순환

우리 몸에 존재하는 체액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혈액이고, 다른 하나는 림프이다. 림프의 순환이 원활해지면 몸속 청소 시스템이 원활해지므로 혈액이 좋아진다. 반대로 혈액과 림프 순환이 정체되면 부종이 생길 뿐 아니라 허벅지, 엉덩이, 복부 등에 주로 나타나는 울퉁불퉁한 오렌지껍질 모양의 살덩어리인 셀룰라이트(cellulite) 발생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림프액의 순환을 도와주는 림프마사지를 하면 평상시에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림프 마사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 림프(lymph)란?



림프는 림프액, 림프관, 림프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총칭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임파’로 불린다. 림프액은 림프관을 통해 흐르고,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모아서 없애는 역할과 면역 역할을 담당한다. 사람 몸에는 림프절과 림프관이 혈관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분포하지만, 혈관과는 별개이다. 림프절은 조직의 림프관과 림프관 사이에 기차역 같은 역할을 하며, 한쪽이 오목한 강낭콩 모양의 직경 1mm~2cm 정도인 작은 결절이다. 주로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이나 이물질을 대항하기 위한 림프구를 생산하고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림프가 막히면 부종, 피부질환,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 림프의 순환

림프액의 순환 속도는 1분 동안 30cm 정도로 천천히 흐른다. 림프의 흐름이 정체되면 림프액이 고이는 부분이 붓게 된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일하는 사람에게 부종이 잘 생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림프절은 크게 귓바퀴 뒤에서 출발하여 턱과 목선을 타고 쇄골과 겨드랑이, 가슴골, 서혜부(좌우 대퇴부의 밑에 있는 하복부의 삼각형 모양의 부분, 사타구니), 무릎 뒤에 존재한다.

- 귓불 뒤쪽 바로 아래의 ‘이개 림프절(귀밑샘 림프절)’은 감기 걸렸을 때 붓기 쉬운 곳으로 이곳이 약하면 이명이 생기거나, 귀의 염증이나 난청이 생길 수 있다.
- ‘악와 림프절(목 림프절)’은 턱의 제일 안쪽으로 얼굴에서 목으로 흐르는 림프관이 집중되어 있다. 이곳이 약하면 이중턱이나 얼굴 부종, 피로의 원인이 된다. 특히 목은 림프관이 제일 많이 집중해서 흐르는 신체부위이므로 평소 피로가 누적된다면 귀 뒤와 목, 쇄골 부위의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겨드랑이 아래에 있는 ‘액와 림프절(겨드랑이 림프절)’은 흐름이 막히면 팔의 피로나 어깨 결림이 생길 수 있다.
- ‘쇄골 림프절’은 전신을 흐르는 림프액이 마지막으로 심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모이는 장소로 가장 오염되기 쉬운 림프액이 모이는 곳이다. 만성적인 목과 어깨 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컴퓨터로 작업하거나 핸드폰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쇄골의 움푹 들어간 곳을 자주 만져주는 것이 좋다.
- ‘서혜 림프절’은 허벅지 안쪽에 있고, 이 부위의 림프 순환이 원활치 않으면 다리 부종이나 냉증, 셀룰라이트, 처진 엉덩이의 원인이 된다.
- 무릎 뒤쪽에 위치한 ‘슬와 림프절’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부위로서 림프액을 위로 올리기에 부담이 큰 만큼 정체하기 쉽다. 다리 부종이나 관절염을 예방하고 싶다면 무릎 뒤쪽을 매일 어루만져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평소 림프의 원활한 순환을 원한다면, ‘걸기나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반신욕, 림프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 림프 마사지 방법은 위 부위를 중심으로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것이다. 마사지 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도록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AF**



글  
소령 박민혁  
(종합보급장)



## “대령님, 착모해주십시오!” Get your cover, Sir!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3년 여름, 미국 Camp. Fort Lee에서 유류장교 교육을 받던 나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했지만, 강렬했던 당시의 순간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그날 우리 유류장교 과정 교육생들은 버지니아에 있는 유류보급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집합 장소에 모여서 대기 중이었다. 이때, 한 무리의 병사들이 지나가던 중 한 명이 대열에서 열외하며 우리 학생장인 미 육군 장교에게 다가섰다. 참고로 학생장의 계급은 대령 진급 예정자였다. 능름하게 다가선 병사는 우리 학생장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한마디 건넸다.

“Get your cover, Sir! - 대령님, 착모해주십시오!”

순간 나를 포함한 외국 장교들은 당황했다. 이어서 벌어질 상황들을 상상하며 불안해지려는 그 순간, 학생장은 엄정히 모자를 쓰고 오히려 본인에게 지적한 젊은 병사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덧붙여 주었다.

견학 목적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무언가 모를 감정이 나의 가슴을 연신 두드렸다. 그런 감정은 일과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도 계속 되었다. 병사이지만 군 기본자세를 어기는 상관의 모습을 보고 정중히 제안하는 용기 있는 자세, 동시에 고계급자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자의 지적에 본인의 외관을 다 잡고 고마움까지 표시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상관. 계급을 떠나 두 사람 사이에 군 기본자세를 숭고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서로 공유되지 않았다면 자칫 비극, 혹은 재앙(?)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두 전우 간, 오고 간 짧은 대화가 3년이 지난 지금도 내 군생활의 기준으로 남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군인에게는 항상 외적군기가 강조된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군인에게 있어 외적 군기를 강조할 때 대부분 그 표적은 하급자가 되기 쉽다.

타인의 외적 자세를 언급하는 행동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공익적 행위라는 인식보다는, 하나의 지시이며 명령이자 훈계로만 받아들여져 조직 전반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범이 전제되지 않은 상관의 계도는 하급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행동’을 ‘부러운 행동’으로 오해하게끔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 끝이 맞닿아 있듯이, 외적 군기와 자세도 군복을 입은 모든 이들의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자. 의무와 권리는 서로 지켜주고 챙겨주는 것이 미덕이다. 우리의 외적 군기 또한 서로 챙겨주고 위해주는, 선진공군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AF**





## | Air-power Report |

# 최초의 파이어 & 포켓 유도병기

# 펠릭스 유도 폭탄



유도 병기가 거의 없던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지대공 미사일  
이나 공대함 유도 폭탄 같은 유도병기를 만들어낸 국가는  
나치 독일을 첫 손으로 꼽을 뿐 연합군의 연구 사례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을 두고 독일  
과학 기술력의 우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파하는  
이가 있다면 필자는 한사코 말리고 싶다. 만들지 않은  
것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신병기가  
실제 전장에서 쓰이기까지는 실로 많은 과정을 거치며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1943년 이후 승세를 잡고 있던  
연합군사령부는 기존 무기들의 생산성을 해칠 신병기의  
실용화에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평가하며 저울질했다.

일찍이 미국에서 개발된 **펠릭스 폭탄(VB-6 Felix)** 같은 경우도 그 좋은 예이다. 현대의 대함 미사일과 유도폭탄의 조상이기도 했던 이 신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렇게 외치며 끼어들 것이다.

*“프리트 X와 똑같네! 그거 독일이 먼저 만들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실용화는 독일 쪽이 조금 더 빠르긴 했지만 펠릭스 폭탄은 독일의 활공 폭탄이나 대함 미사일과는 달리 투하 후에 아무런  
유도가 필요 없이 목표를 추적해 명중시키는 파이어&포켓 기능을 구현한 획기적인 신병기였다. 그런데 연합군은 이미 제8공군을 통해 1944년  
6월부터 프리트 X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유도 폭탄인 AZON을 교량이나 철도를 끊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VB-6의 연구와 개발을 도맡아 진행한 기관은 전쟁성이 관할하고 있던 국가방위 연구위원회(National Defense Research Committee, NDRC : 인기 영화 어벤져스의 비밀조직 '쉴드'의 실제 모델)였다. 펠릭스의 표적 탐지는 적외선 추적 원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악천후나 비구름이 심한 날씨는 그 명중률이 몹시 제한적이었다. 그렇지만 가시광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해상에 떠 있는 함선을 포착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기능 구현에 있어, 당시 독일은 연구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 폭탄의 이름은 어둠을 꿰뚫어 보는

고양이인 '펠리데(Felidae)'의 능력에서 따온 것으로, 전쟁이 더 길어졌다면 분명 대규모로 실전에서 사용되었을 신무기였다.

VB-6 펠릭스는 1000파운드(454kg) 폭탄의 탄체 앞부분에 적외선 시커가 부착되고, 꼬리에는 낙하 도중 목표로 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8각형의 조종 지느러미가 설치된 것이었다. 또한 시인성(visibility)을 높이기 위해 탄미에는 낙하와 함께 자동으로 점화되는 조명탄이 심어져 있었다. 미 해군 또한 육군에 질세라 같은 원리의 유도 폭탄 개발에 예산을 지원해 이스트맨-코닥(Eastman Kodak)의 협력을 받아 **ASM-N-4 도브(Dove)**라는 무기를 만들어냈다.

재삼 강조하지만, 펠릭스나 도브 같은 유도 폭탄들은 나치 독일의 프리츠 X나 헨셀 Hs 293 같은 무선조종 병기와 달리, 자율적으로 목표를 추적해 명중하게끔 만들어진 것이었다. 당대에는 이런 기능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었으나, 훗날 이처럼 조종이 필요 없는 유도병기를 가리켜 파이어 앤 포겟(Fire & Forget)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테스트를 통해 실제로 목표를 명중하는 능력이 입증된 펠릭스는 1945년 늦은 봄부터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전쟁이 끝났다. **AF**

〈펠릭스 제원〉

- 길이 : 231.6cm
- 직경 : 47.2cm
- 중량 : 545kg
- 탄두 작약 : 아마톨 454kg
- 동력 : 추진 장치 없음
- 유도 방식 : 적외선 추적





## 공군 재무관리본부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확인해보셨나요?  
제대로 가입하고, 최대한 이용하기!

혹시 주변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연락을 한 번도 안 받아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제안 받으시는 상품들의 내용도 모르고, 좋다고 해서 하나씩 가입하다보니 가계생활에 부담이 올 정도로 많이 가입한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게 많거나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고객들에게 해가 될 수 있겠죠. 정말 좋은 상품이라도, 각자의 생활 스타일이 다른 만큼 100% 누구에게나 최고인 상품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달은 수많은 상품들의 홍수 속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신경 써서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하고, 언제까지 살 것인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계약의 내용을 잘 모르는 고객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2년 납입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20년 넘게도 납입하는 보험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가계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장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사망보장, 장애, 납입면제, 진단금, 입원비, 수술비, 실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보장만이 필요한 분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사망률의 감소로 위험률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때, 갱신형으로 준비하거나 자녀들의 독립시기를 고려한 정기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암이나 성인병 같은 진단자금, 입원비와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위험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들은 100% '1년 만기' 갱신형입니다. 의료비용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고객이 나이가 들면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은퇴전 보장자산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 되어야 노후생활의 안정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금액으로 큰 보장을 얻을 수 있는 갱신형 특약들은 필요한 시기와 총 납입보험금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내가 가진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자!

1. 생명보험특약 중 '3종 수술특약' 이 있다면 주목해주세요!

치과관련 진료는 많은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임플란트의 경우, 치조골이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5종 분류 수술특약' 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3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술특약을 갖고 계시다면, 치아 1개당 '2종 수술비' 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있다면, 치아 결손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가입시기의 해당약관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2. 디스크의 경우 재해상해 특약으로 도움 받으세요!

무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디스크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이라고도 하죠. 상해를 통해 디스크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장해 특약 가입금액에 해당 장애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재해상해 1억가입-약간의추간판탈출증 지급률 10% 해당 시 → 1,000만원 지급

3. 납입면제라는 건 무슨 말이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재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애상태가 됐을 경우(50% 이상 후유장해 발생)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의 보장성보험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아닌 암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다른 부위의 합산장애지급률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납입이 면제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4. 실비보험으로 한방진료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실비보험에서 한방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급여 의료비는 실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한방 협진병원에서 행해진 MRI검사와 같은 검사비와 진찰료의 경우에는 보상 가능합니다. 진료비의 세부내용을 잘 확인해 봐야겠죠?

5. 수술 받고 나서 장애비율 확인을 해보셨나요?

위나 간, 비장과 같은 장기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절제술이나 적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으로 위의 절반을 떼어내는 경우, 장기에 물혹이 생겨 간단한 시술로 비장 전체를 떼어내야 할 때에도, 미처 알지 못해서 청구하지 못하는 보험금들이 있습니다. 위 절반을 제거하게 되면 50%의 장애율을 적용받게 되고 또한 보험료의 납입면제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비장이나 한쪽 신장의 경우 20% 장애율이 적용되므로, 가입한 재해특약까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AF**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이루길 바라지만, 생각보다 주변엔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보장에 대한 준비는 현재 건강한 나와 가족이 꿈꾸는 재무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나와 가족이 오늘 건강해야 내일 아침을 다함께 웃으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들이 아플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내일.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잘 준비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준비된 공군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폭염으로 대한민국이 후끈합니다. 그만큼 더욱 열정적인 8월이 되리라 믿습니다!



# Hollywood English

# 어린왕자



자식을 지나치리만치 과보호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관여하거나 간섭하면서 일일이 챙겨주는 어머니를  
헬리콥터 맘(helicopter-mom)이라고 부르지요. 착륙 직전의 헬리콥터  
날개가 뿜어내는 바람은 어찌면 우리네 방식의 은유이기도 한  
'치맛바람'을 무척 닮아있습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해봅시다. “애, 책이나 읽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가서 공부나 해.” 저는 이런 말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하는 가장 위험한 언어폭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지 말라는 것은 ‘자녀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필요가 없으니  
또박또박 시험이나 잘 치고, 훗날 커서는 기계 같은 인간이 돼 기계처럼  
살라’는 주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딸의 장래를 위해 인생 설계도  
(life plan)까지 마련해놓았습니다. 딸이 계획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구박이 바가지에서 쏟아지듯 쏟아집니다. 딸이 어린왕자를  
읽고 있으면 그걸 뺏고 찢어선 쓰레기통에 처넣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딸이 명문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게 면접  
코치를 해줍니다. 딸은 지금 명문 ‘워스 아카데미’에 면접을 보러  
와있습니다. “워스 아카데미에 적합한 학생인가?” 라는 최종 질문에  
대비해 세 개의 대답까지 똑 부러지게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어머니가 뽑아준 모범 답안이니깐요. 드디어 면접관이 입을 엽니다.

"What will you be when you grow up?"

년 크면 무엇을 할 거니?

준비해간 세 개의 대답만 ‘입으로 껌박이던’ 딸은 보기 좋게 불합격  
합니다. 면접장 입구 옆에 붙어있던 포스터 속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던만...! 애니메이션 <어린왕자 The Little Prince>(2015)는  
'상상하지 못 하는 자는 날개가 없다(The man who has no imagination  
has no wings)' 는 걸 매우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생텍쥐페리의 원작 이야기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한 영화인데요. 영화 제작진은 괴짜 할아버지가 홀로 사는 고택을 무대로 상상력의 날개를 펼쳐 비상합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학군을 바꾸다보니 괴짜 할아버지와 이웃이 된 건데요, 소녀가 읽던 책 <어린왕자>는 이 할아버지가 선물한 것입니다. 저의 느낌으로는, 할아버지가 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꼭 닮았습니다. 네루다는 70세에 이르러 시집 <질문의 책>을 지었는데, 책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일부분 옮겨오기로 합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직 내 안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Where is the child



I used to be? Is that child still in me or is he gone now)?' 소녀의 어머니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딸이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있잖니, '나였던 그 아이', 즉 '천진난만한 아이의 마음과 호기심' 을 커서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단다." 이런 말도 해줍니다. "어른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니지. 어른이 돼서도 어린 시절을 잃는 게 문제란다(Growing up is not the problem. Forgetting it is the problem)." <어린왕자>를 읽으면서 소녀는 어린 왕자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웃 할아버지의 친구가 돼줍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사고뭉치라는 점입니다. 그의 비밀의 정원에는 골동품 비행기도 있고 별별 발명품들도 수북합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소녀는 그가 젊었을 때 사막에 불사착했었고, 그 때 어린왕자를 실제 만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딸이 '인생 설계도'를 무시해가며 괴짜 할아버지와 친해지는 걸 매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마침내 모녀 사이엔 충돌이 일어납니다. 엄마는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인생이야"라고 쏘아붙이고, 딸은 "그건 내 인생이 아니고 '엄마가 원하는 내 인생' 이겠지" 하며 대꾸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봐야지 잘 보인다' (It is only with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는 걸 깨닫지 못하는 어머니 몰래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제안합니다. "저와 함께 어린왕자를 찾으러 가요." 과연 둘의 모험은 성공 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연로한 할아버지는 몸져눕고 맙니다. 소녀는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을 잃는 게 문제' 라고 말할 때 덧붙인 말입니다.

"I managed to grow up and I never forgot the Little Prince." 어찌다보니 나도 어른이 됐지만, 난 나의 어린왕자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어린왕자가 있다고 '마음으로 믿는' 소녀는 이제 홀로 어린왕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자면 할아버지의 고물 비행기가 이륙해줘야 하는데 그게 가능이나 할까요? 스포일러여서 가려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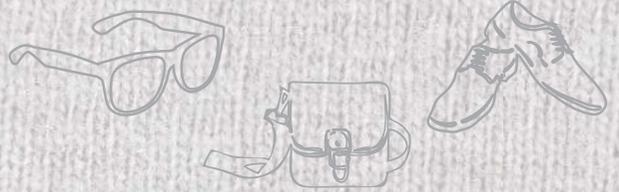


특히 후반부는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린왕자> 이야기를 재창조한 파트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즐기실, 또는 영화를 보면서 즐기실 여러분의 상상놀이를 손톱만큼도 방해하고 싶지않기에 몽땅 가려두기로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두고두고 여운을 남길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한 송이 꽃이 있기 때문이지." 샘과 꽃이 각각 또는 동시에 은유하는 것은 뭘까요? 영화는 이렇게 우리에게 매력적인 과제도 내주는군요. 아이의 눈 속엔 700만 개의 불가사의가 있다고 하지요. 반면 어른의 눈엔 7대 불가사의만 보인다고 하지요. 어른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그 무엇이든, 그걸 잘 볼 수 있게 위하여선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어른' 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영화는 그런 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고, 그렇기에 대단원에서는 딸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어린왕자>를 읽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AF**



## TREND'S GOOD

# 트렌드가 보인다



### 여름철 스킨케어 아이템



짧은 장마가 끝나고 전국에 폭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본격 '무더위'에 돌입했지요. 이젠 해가 저도 밤바람이 예전만치 선선하지 않죠? 덥다고 짧은 옷을 골라 입는 것도 좋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햇빛에 노출된 내 피부가 더 빨리 노화하고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 귀찮더라도 피부 관리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피서지를 다녀왔더니, 온몸이 빨개지고 후끈거려요.”**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은 '여름휴가' 성수기. 그만큼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바다가 펼쳐진 해수욕장까진 못가더라도 가까운 계곡이나 워터파크를 찾아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일광화상(햇빛화상)'입니다. 바로 '피부가 뒹다'고 말하는 그 상황인데요. 일광화상을 입을 경우 즉시 냉수로 열을 식혀야 합니다. 단, 차갑다고 해서 얼음이나 알코올을 이용하면 피부에 더 큰 자극을 동시에 줄 수 있으니 사용 금지! 꼭 찬물이나, 피부진정에 도움 되는 알로에 젤 등을 이용하세요!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젤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피하는 센스!)

## “정수리가 뜨거워 두피가 걱정인 당신을 위한 선택”

신체 부위 중 햇빛을 가장 직격탄으로 받는 두피! 장병 여러분 중 의외로 탈모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모름지기 튼튼한 머리칼은 튼튼한 두피에서, 내 머리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 여름 두피 건강은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바르기만 해도 즉각적으로 두피 온도를 낮추어 주는 '두피 쿨링' 제품을 주목하시길.



01. 케라시스 레알 센 콜모닝 두피 쿨러 / 9,900원  
02. 이니스프리 에코아이스 헤드 쿨러 / 10,000원  
03. 잇츠스킨 쿨라우드 비어 헤드 쿨러 / 10,000원

## “얼굴에 기름기가 폭발하는 당신을 위한 선택”

사람의 피부 온도는 36.5도. 하지만 한여름에 외출하면 15분만에 5도 이상 급격히 상승합니다. 피부 온도가 41도로 올라가면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화 탄력 섬유가 급격히 줄어들어 주름이 생기는 등 피부 노화가 빨라집니다. 확장된 모공으로 피지도 올라오죠. ‘더우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내버려뒀다간, 확장된 모공 그대로 까맣게 착색될 수 있습니다. 피지를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공기 중 먼지와 뒤섞여 뽀루지와 여드름이 생긴답니다.

01. M° C(엠도씨) 스트라이크 HD 파우더 티슈(남성용) 물 없이도 세안한 효과를! 지성피부에겐 사계절 항상 휴대해도 괜찮을 아이템입니다. 화장품 사용이 영 어색한 남자, 군인들을 위한 물티슈 타입의 피지 조절 아이템입니다. 땀으로 얼룩지고 끈적끈적한 얼굴에 티슈를 뿜어 속 닦아 내면 되지요. 얼굴 외에 땀이 나는 모든 부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칭 ‘바해(BHA)’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 살리실산 성분은, 묵은 각질을 정리해 피부결 진정 효과까지!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갑게 사용하면 좋겠네요. / 4,000원



01

02. NAKEUP FACE 쿨링 피지 컨트롤 미스트 for Man 유분이 번들거릴 때 꺼내어 피부 위에 뿌려주는 수분 안개 미스트. 겉보기엔 촉촉한 물방울 같지만, 미스트 속에 함유된 피지 잡는 파우더가 기름을 잡고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를 낮춥니다. / 23,000원



02

## “땀띠 때문에 피부 걱정인 당신을 위한 선택”



01

02

03

지속시간 10시간 이상, 체온 2도 저하! ‘뿌리는 에어컨’을 아시나요? 스프레이를 뿌려두면 섬유에 달라붙은 흡열, 방열 성분이 지속적으로 열을 흡수합니다. 다한증 때문에 땀 냄새와 땀띠로 고생하는 분이라면 꼭 휴대하시길! 옷뿐만 아니라 침구에도 뿌려두면 좋겠네요.

\* 주의 : 몸에 직접 뿌려선 안 됩니다! 반드시 ‘섬유’에만 뿌려주세요.

01. 코버 쿨링 스프레이 / 약 15,000원  
02. 애경 리큐 쿨링 스프레이 / 4,900원  
03. 어류 셔츠 풍풍 미스트 / 2,800원

## “발냄새 때문에 신발 벗기 어려운 당신을 위한 선택”

발 피부를 위해선 순간적으로 땀을 식혀주고, 냄새를 제거하는 ‘풋 미스트’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스트를 뿌린 후 발을 촉촉한 상태로 신발 속에 넣어 말고, 충분히 말려준 후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맨발은 물론, 양말을 신은 채로도 사용 가능한(신발에 직접 분사도 가능) 쿨링 풋 미스트를 골라봤습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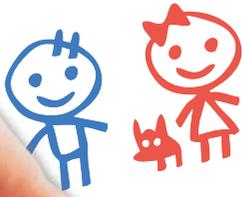
01. 더바다삼 페퍼민트 쿨링 풋 스프레이 / 13,000원  
02. 보르도 민트 쿨링 풋 스프레이 / 24,000원  
03. 쏘내추럴 스멜 아웃 멀티 풋 미스트 / 10,000원



01

02

03



# 생각하는 그림

## # 무대 위의 유령, 페이지터너

#1 똑같은 음악인이지만 공연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 흔히 '무대 위의 유령'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페이지터너'들입니다.



#2 페이지터너는 주로 음표가 많고 빠르기와 기교가 많이 들어가는 피아노 연주 등에 피아니스트와 함께 무대에 올라 악보를 넘겨줍니다. 연주자가 연주에 몰입해있을 때 악보를 넘기기 힘든 곡은 페이지터너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때 페이지터너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공연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3 이러한 페이지터너의 세계에서 지켜야 할 공식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자보다 튀어서는 안 되고 연주자와 함께 무대에 입장하거나 퇴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중의 박수 갈채가 이어질 때도 몸을 숨겨야 하며 박수에 답례할 수 없습니다.



#4 무엇보다도 페이지터너는 연주자와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연주자가 원하는 시점에 악보를 넘겨 주는 센스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주되는 모든 음에 귀를 기울여 집중해야 합니다. 악보를 넘길 때에도 섬세하고 민첩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5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무대의 주인공인 연주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연주자나 관객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페이지터너의 미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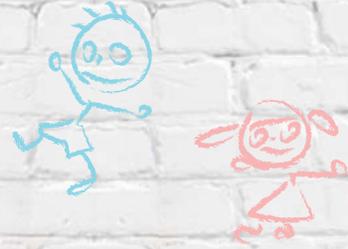


#6 이처럼 걸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임하는 고마운 페이지터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존재들을 간과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주변을 더욱 빛내주는 수많은 페이지터너들을 떠올려보고 오늘 하루,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따뜻한 날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AF**



# 담벼락

## 그 마흔네 번째 이야기 「벌레」



제511방공유도탄포대  
발사중대  
상병 서종원

### 공부벌레내 짝꿍



2010년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사실 나는 이미 고등학교를 한번 입학했다가 재입학을 했었다. 그래서 같은 학년 친구들보다 1살이 많았고 개중에는 내가 다닌 중학교 후배들도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내 중학교 후배이자 고등학교 1, 2학년 2년간 내 짝꿍이었던 지훈(가명)이와 나의 이야기이다. 지훈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전교 1등을 도맡아 했던 꽤나 유명한 우등생이었다. 공부도 운동도 잘했고 성격도 밝아서 모두가 좋아했다. 반면 나는 중학생 때부터 동네에서 불량하고 문제를 일삼았던 불량 학생이었다. 하지만 지훈이는 색안경 쓰고 보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나를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나이가 많다고 따돌리지 않고 오히려 보다 챙겨주었다. 덕분에 나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인문계고등학교로 입학했던 나였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도 계획도 없었고 공부를 워낙 못했기에 수업시간 에도 크게 집중을 하지 않았다. 전교생이 거의 다 했던 야간자율학습도 하지 않았다. 그 때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멋이라고 생각했다. 1학년 때 성적은 대략 전교생 300명 중에 270등 정도였다. 담임 선생님은 공부도 못하고 야간자율학습도 빠졌던 나를 평소 매우 못마땅해 하셨다. 어느 날 영어수업 중에 담임 선생님은 갑작스럽게 나에게 질문을 했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생님께서는 “니는 나이도 많은 게 대체 할 줄 아는 게 뭔데? 옆에 지훈이 보라. 진짜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훈이 니가 답해봐라.”라고 비교를 하며 소리치셨다. 지훈이는 예상대로 보란 듯이 답했다. 평소 고맙게 생각했던 짝꿍이지만 그 순간은 너무 미웠다. 비교를 당했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했던 나는 다짐했다. ‘내가 기필코 공부해가, 점보다 시험 잘 치서 내 무시했던 느그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뺨끼다!’

그리고 학년이 끝나는 겨울방학식에서 지훈이는 웃으면서 2학년도 같은 반이 되었으니 잘해보자고 했었다. 그런 지훈이에게 나는 별안간 “내가 니보다 시험 잘 칠 끼다, 두고 보라!”라고 소리쳤고 지훈이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던 나는 계획표를 만들고 매일매일 공부했다. 조금 흐트러질 때면 나는 지훈이의 얼굴과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독하게 공부했다. 그 과정 속에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었고 달라진 내 모습에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잔뜩 놀란 모양이었다. 야간자율학습도 시작했고 수업시간에 조는 일은 없었다. 질문에도 곧잘 대답했고 뒤늦게 한 공부였지만 수학 외에는 딱히 어려운 과목도 없었다. 2학년 1학기 성적표에 찍힌 석차는 전교 20등. 엄청난 발전이었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1등이었다.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공부가 재미있었고 오르는 성적 속에서 어느덧 미래를 설계하고 가고 싶은 대학과 전공이 생겼다. 목표가 생기니 의욕은 더 커지고 배움의 재미는 배가 되었다. 2학기 때는 전교 7등이었고 반에서는 드디어 지훈이 바로 뒤인 2등이었다. 2학년이 끝날 무렵, 학교에서 나는 어느새 모범생이 되어있었다.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나를 좋아했고 시험이 끝나고 나에게 답을 물으러 오는 친구들도 더러 있었다. 지훈이는 나에게 “형, 3학년은 같은 반이 못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옆 반이라 다행이에요.”라고 웃으며 말했고 나도 웃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3학년 1학기에 나는 전교에서 4등, 반에서 1등이라는 꽤 괜찮은 성적을 받으며 원하는 학교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했다. 결국 단 한 번도 나는 지훈이보다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발전했고 의미 있는 학창시절을 보냈다. 돌이켜보면 공부벌레 에 성격도 좋은 내 짝꿍은 좋은 동생이자 좋은 친구였고, 나의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공군본부  
연습훈련과  
소령 김여주

## 엄마가 된다는 것

나는 지금껏 벌레에 비교적 둔감한 편이라, 밤새도록 모기에 물려도, 귓가에서 계속 웅웅거리는 소리에도 한 번도 잠을 깨지 않고 잘 자는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인간 모기향’이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 한방에 있어도 모기의 첫 번째 선택대상은 언제나 나였기 때문에, 그들을 견뎌내면서 점점 더 둔감하게 변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런 체질이 180도 달라졌다. 모기에 잘 물리는 엄마의 체질을 물려받은 건지, 아들은 방안에 있는 모기들의 제1순위 타겟이 되어 밤새도록 물렸고, 다음날이면 약을 발라줘도 가려움에 괴로워하며 보냈다. 피가 나도록 긁어서 앓은 딱지와 흉터가 다음날 덤으로 따라왔을 때, 그걸 바라보는 속상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저 해충에 불과한 모기, 자신의 알을 낳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피를 빨 수밖에 없는 암컷 모기이지만, 아기의 물린 자국이 흉터로 변해가자 엄마로서 참을 수 없었다. 이미 도망가서 보이지도 않는 모기한테 진심으로 경고했고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다. ‘왜 신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놈의 모기를 만드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때부터 모기와와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선 방충망을 미세방충망으로 교체했고, 모기향은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은 짝퍽 때문에 모기가 싫어한다는 계피향 천연스프레이도 사서 곳곳에 뿌렸다. 매의 눈으로 수시로 천장이며 벽을 살피서 파리채로 잡았고 모기를 끌어들어서 태워버리는 벌레 퇴치기도 사서 설치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한번 잠들면 절대 깨지 않았던 내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모기의 기척(?)이 느껴지면 잠자다가 수시로 깨게 되었고, 미약한 웅~소리에도 바로 잠에서 깨, 후닥닥 불을 켜고 모기부터 잡았다. 내가 불을 켜고 파리채로 천장을 치는 등 새벽에 모기와 대 전쟁을 펼치며 난리를 치는 동안 아기는 예전의 나처럼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이 잔다. 어쩌면 내가 지금껏 모기에 물리더라도 폭 잘 수 있었던 건, 그런 체질이 된 건, 곁에서 내가 모기에 물릴까봐 모기체를 잡고 불침번을 섰던 엄마 덕분에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여태껏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엄마는 어지간히 모기가 싫으신가보다’, 아니면 ‘모기 소리에 너무 예민하신 성격인가보다’ 라고 무심히 넘겨왔다.

사실은 어린 자식들이 잠을 못 자고 중간에 깨거나, 다음 날 가려움에 시달리며 여린 피부에 상처가 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마음은 아니었나 하는 작은 깨달음에 마음이 아려온다. 지금껏 알 수 없었던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을 초보 엄마로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

최근 오랜만에 만난 엄마께 별 뜻 없이 요새 모기 때문에 난리를 치느라 자주 잠에서 깬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재미있는 것은 ‘아기들은 원래 모기에 잘 물리고, 우리 딸은 군 생활 힘들 테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폭 자’ 라고 하셨다는 것. 아직은 아무래도 외손자보다는 딸이 더 귀하신가보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운항관제대  
병장 이현욱

## 꿀벌로서 죽기

아침마다 활주로를 청소하러 나간다. 빗자루 하나, 쓰레받기 하나, 관제탑 눈에 잘 띄라고 빨간 조끼 하나 걸치고 걸다 보면, 검은 노면 위에 앉아있는 노란 조끼 입고 나온 꿀벌을 만나게 된다. 곤충인지, 수거해야 할 F.O(Foreign Objective, 이물질) ‘곤충 사체’ 인지 모를 꿀벌은 움찔거리는 공무니로 자신이 아직은 살아있음을 표현한다. 어떤 것에게는 날아 오르기 위한 길이지만 꿀벌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사막이었나 보다. 연일 30도를 넘어가는 겹계 탄 활주로 아스팔트 표면에서, 내게 발견되는 꿀벌은, 항상 죽어가거나 납작하게 늘어붙어 수거해야 할 F.O.가 되어있었다.

이미 늘어붙은 곤충사체가야 곤화로 몇 번 비벼 가루가 된 시체를 쓸어 담으면 그만인 F.O.인데, 나를 멍청하게 하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꿀벌이었다. 아침 활주로 점검은 비행에 쫓겨 바쁘게 흘러가고, 죽어가고 있는 꿀벌을 죽은 꿀벌로 만들어 쓸어갈지, 내버려둬 수거하지 않은 F.O.로 만들지 고민할 시간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빠르게 빗자루로 내려쳐 쓸어가면 그만이지만 노란 조끼를 입은 꿀벌은 눈에 잘 띄고, 움찔거리는 공무니를 보다보면 어느 새인가 혈떡이는 숨소리에 섞여 “난 아직 살아있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정해진 비행시간에 맞춰 걷는 F.O. 점검 대열이 나를 앞질러간다. 노란 조끼를 입고 지쳐 쓰러진 그와 다르게 빨간 조끼를 입은 나는 아직 대열을 쫓아갈 힘이 남아있으니까, 잠시 멈춰 그와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눠본다. “지금 죽지 않아도 곧 죽게 될 거야”, 빗자루로 그를 싹 쓸어본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힘으로 풀발로 날아가다 곧 다시 활주로에 추락한다. “난 곤충으로 죽고 싶어. 수거함에 들어가 F.O. 취급당하고 싶지 않아”, 그가 혈떡거린다. 대열은 점점 멀어져가고, 더 늦기 전에 그를 풀발 방향으로 한 번 더 밀어주고, 빠른 걸음으로 갈 길을 간다.

지푸라기, 잔돌, 곤충 사체를 쓸어가며 도보 점검을 마무리한다. 한 20분이 지났을까, 뒤에서 반장님이 타고 계신 꿀벌과 똑같이 생긴 유도차량이 다가온다. 반장님께서 “벌 사체 엄청 많던데 F.O. 점검 제대로 해라”라고 한마디를 던지신다. 문득 반장님께서 보신 벌 사체를 가운데 그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는 F.O.로 수거당하길 기다리고 있을지, 꿀벌로서 죽었는지 궁금하다. 그가 꿀벌로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도보 점검 대열은 종점에 도착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겠지만, 괜히 대열을 이탈해, 지금쯤 그의 시체가 있을법한 지점을 쳐다본다. **AF**





# 책 읽는 공군



##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후 지음  
프롬북스 펴냄

우리 주변에 넘치는 수많은 멘토들, 수많은 강연.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서도 열광하는 강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강연이 있기도 합니다. 이 강연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강연 속에서 바라는 것은 분명 우리의 문제들, 고민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써 굉장히 힘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멘토들의 강연을 듣는 이유는 해결책이 아닌, 그 실마리와 단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이 실마리란 것들이 구체적일까요? 물론 그렇지 못합니다. 다분히 광범위하고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는 이것입니다.

핵심과 본질이 같을지라도 다른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 흔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공감을 주며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멘토를 찾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훌륭한 멘토가 될 만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책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혁신하세요.” 우리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분명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공감을 준 베스트셀러입니다. 이유는 책 제목 그대로 관점을 디자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 돈은 어떻게 모아야 한다’와 같이 세상의 흐름을 열심히 따라가는, 식상하고 울림 없는 것이 아닌, ‘세상의 흐름을 열심히 따라가지 마라, 직접 만들어라’가 이 책이 제시하는, 디자인된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그가 디자인한 제품들에 놀라며 감탄하고 그의 제품을 믿고 사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를 보고 흔히들 천재라고도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생활패턴을 바꾸었고, 삶의 방식을 바꾸었고,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버튼이 뽀뽀한 핸드폰이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가벼운 터치로 거의 모든 문화생활이 가능한 이 놀라운 사회를 살면서 예전처럼 신선해하지 않죠. 우리 어느덧 그러한 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느 순간 이 흐름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잡스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삶을 둘러싼 익숙함을 거부했고,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연함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남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고정 관념을 탈피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관점을 바꾸었다’라는 말입니다.

스티브의 예로 저는 이 책을 통해 배운 바를 설명했습니다. 남다른 관점을 갖는 것.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의 시작이 바로 ‘관점’인 것입니다. 반드시 창업 자본이나 거대한 회사, 오랜 준비 기간만 가지고 제2의 잡스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정의는 얼마든지 업데이트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흐름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눈을 통해 본질에 접근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걸러내어 자신만의 색깔을 세상의 흐름에 흠뻑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AF**

글  
상병 위성주  
(제8전투비행단)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도로명주소: \_\_\_\_\_

□□□□□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공군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 2 | 8 | 0 | 0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을 응모해 주세요.

2016  
August  
Vol.458

백일장 마흔다섯 번째 주제

달  
(月, Moon)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 dnd1004@af.mil

인 터 넷(E-mail) : afcmct@korea.kr

전화번호 : 042-552-6943

POSTCARD

#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월간 <공군> 8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8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월간 「공군」 8월호

## Quiz

잘 읽고 정답은  
상단 엽서에 적어주세요~

마감일 : 8월 31일까지

1. 다음 중 미 공군부대가 있는 기지가 아닌 곳은?

- ① 오산기지                      ② 군산기지                      ③ 천안기지

2. 더욱 신뢰받는 강한 공군이 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캠페인 이름은?

- ① 청정공군                      ② 청명공군                      ③ 클린공군

### 6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③ 항공구조사      2. ① 로드마스터

당첨자 부산 부산진 이윤슬 / 경기 용인시 정창재 / 대구 수성구 주은환  
경기 이천시 김중희

간첩 · 테러범 · 방산스파이 · 사이버테러 · 군사보안  
신고 ·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c.mil.kr](http://www.dsc.mil.kr))

병영생활고충, 군범죄 · 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 (군 · 공중 · 일반 · 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트라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2016**  
**August**  
Vol.458



보내주신 독자엽서 중  
매월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분께  
멀티비타민 '헬 플러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월간<공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 인터넷 월간「공군」 OPEN!

- 1952년 창간호부터 최신 발간호까지 모두 다운로드 가능(지속 업데이트)
- 특정 키워드 검색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공군지 한번에 검색 가능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인들의 뜨거운 청춘과 정열이 담긴 60년의 기록을 손쉽게 찾아보세요!

인터넷 주소창에  을 입력해보세요.



<http://afzine.kr> 공군 매거진 블로그엔 재미있는 소식들이 가득!

<http://afplay.kr> 공감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공군



MONTHLY MAGAZINE + 2016.8 / VOL.458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16.8 / VOL.458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Letters to editor



좋은 의견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이윤슬 부산 부산진

월간 「공군」은 '설명서' 이다. 매달 월간 「공군」을 통해 공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이번 6월호를 구독하며 조종사가 아니라도 조종복을 입는 보직을 가진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공군으로서 강한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진 그들의 인터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 편집실

월간 「공군」을 통해 공군 장병들의 강한 소속감과 사명감이 이윤슬 독자님 마음에 와 닿았다고 말씀해주시니 월간 「공군」이 마치 좋은 참고서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합니다.



## 정창재 경기 용인시

월간 「공군」은 '연극' 이다. 연극 하나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월간 「공군」을 한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편집실

연극배우와 스태프들이 더 좋은 연극을 만들기 위해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하는 것처럼 편집실도 더 나은 월간 「공군」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은환 대구 수성구

월간 「공군」은 '비타민' 이다. 지난 6월호에 신설된 공군문학함에 소개된 '소녀가 엄마가 되면' 과 '슬픔은 밤하늘에 있음을' 시가 참 감동적이고 여운이 남네요. 좋은 문학 작품을 읽는 건 마치 힘이 되는 비타민을 챙겨먹는 것 같아요!

### 편집실

주은환 독자님, 앞으로도 공군 장병들의 훌륭한 글 솜씨가 담긴 문학들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설 코너인 만큼 지금까지처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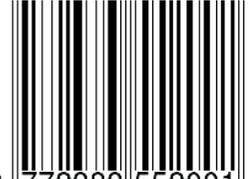
## 김종희 경기 이천시

월간 「공군」은 '아들' 이다. 월간 「공군」을 보면 아들 같은 많은 공군 장병들이 영공수호를 위해 헌신하며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공군하사로 임관한 아들을 둔 엄마로서 모든 공군 장병들을 응원하게 되네요.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

### 편집실

먼저, 아드님의 하사 임관을 축하드립니다. 김종희 독자님께서 모든 공군 장병들을 응원해주신 만큼 월간 「공군」 또한 아드님의 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월간 「공군」을 통해 다양한 공군 소식을 알려드리니 앞으로도 애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월간<공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 인터넷 월간「공군」 OPEN!

- 1952년 창간호부터 최신 발간호까지 모두 다운로드 가능(지속 업데이트)
- 특정 키워드 검색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공군지 한번에 검색 가능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인들의 뜨거운 청춘과 정열이 담긴 60년의 기록을 손쉽게 찾아보세요!

인터넷 주소창에 <http://afzine.co.kr> 을 입력해보세요.



<http://afzine.kr>

공군 매거진 블로그엔 재미있는 소식들이 가득!

<http://afplay.kr>

공감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공군

